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 2019년 10월호

리아호나



자녀가 외설물을 접하고 있을 때
사랑이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36쪽

복음이라는 렌즈의
명확성, 12쪽

예수께서 어린이들을 지키신
5가지 방법, 18쪽

태평양에 성전의 축복이 임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며, 28쪽

여기에
교회가
있다

마다가스카르

안타나나리보



다음은 마다가스카르와 그곳에 있는 교회에 관한 몇 가지 사실이다.



18 섬에 사는 원주민 부족

이곳에 많은 영향을 끼친 문화: 폴리네시아, 아랍, 아시아, 아프리카, 프랑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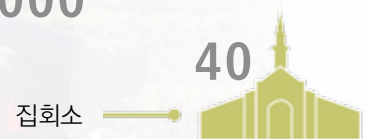


26 마다가스카르 인구 (백만 명)

공식 언어: 말라가시어 / 프랑스어



12,000 교회 회원



40 집회소

1986 최초의 말라가시 회원이 프랑스 보르도에서 침례를 받다

1990 다섯 사람이 침례 및 확인을 받다

1998 최초로 선교부가 조직되다

2000 최초로 스테이크가 조직되다



사진: GETTY IMAGES

예수님은 우리의 어린이들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어린이를 생각하는 것으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저는 우리 가족의 아이들과 친구들의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그에 더하여, 저는 교회 잡지에서 전 세계 어린이들을 위해 지면을 만들고 편집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제가 어린이들에 관해 경전에서 가르치는 바를 한 번도 연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약전서와 물문경을 읽기로 결심했고, 이 특별한 그룹에 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에 더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 계기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많은 진리를 발견했지만 그중에서도 예수님이 어린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것은 저에게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어린이들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여 특별하게 대하셨으며, 여러 차례 되풀이해서 그들에게 성역을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분의 모범을 따를 수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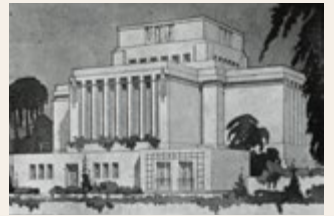
18쪽의 기사에서 저는 경전을 공부하며 얻은 몇 가지 교훈과 학대 예방 분야의 여러 전문가의 의견과 조언을 모아 보았습니다.

어린이들은 정말 소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어린이들을 대하며,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능력을 발휘하도록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담아,
머리사 위드슨



복음의 관점이 주는 축복
게리 이 스티븐슨 장로
12



하와이 라이에 성전:
100년 동안의 집합
클린턴 디 크리스텐슨,
앤절라 알 크리스텐슨
28



가능성을 믿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조니 엘 코흐 장로
24



외설물 문제를 다루는 법:
보호하고, 반응하고, 치유합니다
조이 디 존스
36



목차

- 5 외설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
- 6 신앙의 초상
월슨 디 파올라, 우루과이 산호세 ☹
월슨은 오토바이 사고로 장애가 생겼다. 그리고 곧 아내마저 세상을 떠나자 그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앞이 막막했다. 그러나 그는 복음을 통해 그 답을 얻었다.
- 8 성역의 원리
성역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 뿐 아니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 12 복음의 관점이 주는 축복
게리 이 스티븐슨 장로
영적인 균형을 유지할 때, 우리는 더욱 복음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될 것이다.
- 18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머리사 위드슨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이를 사랑하고 보호하셨다. 우리는 어떻게 그분의 모범을 따를 수 있을 것인가?
- 24 가능성을 믿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조니 엘 코흐 장로
남을 판단하기는 쉽다. 그러나 우리는 의로운 판단을 하기 위해 신중해야 하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남을 보도록 노력해야 한다.
- 28 하와이 라이에 성전: 100년 동안의 집합
클린턴 디 크리스텐슨, 앤절라 알 크리스텐슨
하와이에 있는 성전 덕분에 태평양 전역에 있는 성도들은 100년 동안 성전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
- 32 후기 성도의 소리 ☹
봉사하도록 영의 인도를 받은 두 자매, 선교사들의 메시지가 가져온 변화. 한 감독이 상여금을 받고 내린 결정. 손상된 관계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 편지 한 통.
- 36 외설물 문제를 다루는 법: 보호하고, 반응하고, 치유합시다
조이 디 존스
자녀들은 외설물에 노출되어 있으며 그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여러분의 사랑으로 그들은 외설물을 피하고 외설물의 해로운 영향을 극복할 수 있다.

🕒 짧은 기사



표지
사진: Pixdeluxe/Getty Images

섹션

청년 성인

42

이번 호에는 외설물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과 데이트를 하는 사람이 취해야 할 대처 방법과 더불어 데이트 관계에서 외설물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들려주는 희망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청소년

50

진정한 친구가 된다는 의미, 한 청소년이 이야기하는 복음을 나누는 방법, 교회의 중심 모퉁이들 기억하기.



어린이
『친구들』

예수님이 하시듯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프로디는 무서울 때 기도도 도움을 받았어요. 플로렌스는 간호사가 되었어요. 여러분도 성전에 갈 준비를 할 수 있어요.



온라인 전용 기사



나는 외설물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분투했는데 왜 그는 그러려고 하지 않을까?
익명

과테말라 출신의 한 청년 성인이 어려운 결정을 내리기 위해 주님을 신뢰했던 자신의 경험을 나눈다.



외설물 문제를 고백하는 사람에게 반응하는 방법을 나는 어떻게 배웠는가
익명

외설물에 빠진 누군가를 알게 되면 만감이 교차하게 마련이다. 하지만 이 청년 성인은 어떻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반응해야 할지 알기 위해 구주께 의지했다.



약혼자가 외설물을 본다는 걸 알게 된 후에 앞으로 나아가
익명

타히티의 한 청년 성인이 외설물이 대인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자신의 통찰을 나눈다.

2019년 10월호 제56권, 제10호
리아호나 18610 320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판 잡지
제일회장단: 러셀 엠 넬슨, 달린 에이치 욱스, 헨리 비 아이어링
십이사도 정원화: 엠 러셀 벨라드, 제프리 알 홀랜드, 디아터 에프 우호트도르프,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닐 앨 앤더슨, 로널드 에이 래스밴드, 게리 이 스티븐슨, 데일 지 랜런드, 게릿 더블유 쿡, 올리세스 소아레스
편집자: 렌디 디 펑크
고문: 랜들 케이 베네트, 베키 크레이브, 크리스티나 비 프랑코, 쉐런 유벵크, 도널드 엘 홀스트롬, 래리 에스 캐처, 에릭 더블유 코우피쉬케, 린 지 로빈슨
관리 책임자: 리처드 아이 히튼
교회 잡지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비즈니스 관리자: 가프 개넨
관리 편집인: 애덤 시 울슨
관리 부편집인: 라이언 카
출판 보조: 카밀라 카스트리온
기사 작성 및 편집 팀: 데이비드 덕슨,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매튜 디 폴리턴, 게릿 에이치 가프, 존 라이언 켄슨, 에런

존스턴, 살렛 라카발, 마이클 알 모리스, 에릭 비 머독, 조슈아 제이 퍼키, 켄 핀보로우, 리처드 엠 롭나, 민디 셸루, 로리 폴러 소사, 차켈 워들레이, 머리사 위디슨
편집 인턴: 알렉산더 파머
관리 미술 책임자: 제이 스코트 크누센
미술 책임자: 대드 알 피터슨
디자인: 저넷 앤드루스, 페이 피 앤드루스, 맨디 벤들리, 시 김블 보트, 토머스 차일드, 조슈아 데니스, 데이비드 그린, 콜린 헝클리, 에릭 피 존슨, 수전 로프그렌, 스콧 엠 무이, 에멜리 치에코 레밍턴, 마크 더블유 로빈슨, 케이 니콜 워큰호스트
디자인 인턴: 소피아 스파나우스
지적 재산 코디네이터: 콜레트 네베커 오윤
제작 관리자: 제인 앤 피터슨
제작팀: 아이라 클렌 에더어, 줄리 버넷, 토머스 지 크로닌, 브라이언 더블유 지기, 지니 제이 님슨, 머리사 엠 스티스
사진 인쇄: 조슈아 데니스
인쇄 책임자: 스티븐 티 루이스
배부 책임자: 넬슨 곤살레스
우편 주소: Liahona, Fl. 23,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0023, USA.
통권: 제643호, 제56권, 제10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19년 10월 1일(월간지)
발행인: 박경렬
편집 및 번역 책임자: 최봉선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술품별시 중로구 자하문로 152
인쇄인: 한국학술정보(주) 채종준
리아호나 신청 및 문의 홈페이지: HTTP://LIAHONA.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전화: 리아호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전화 080-238-8000)
구독료: 1년 구독료는 7,000원, 권당 가격은 700원입니다.(해외 구독은 개별 문의 바랍니다.)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예금주: (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신원은행 100-001-389810
리아호나("나침반" 혹은 "지시기"를 뜻하는 물문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살어, 말라가시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마어, 사모아어, 세부어, 스와힐리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중국어(간체자),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티어, 타갈로그어, 타히티어, 태국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헝가리어. (발행 횟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19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저작권 정보: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리아호나에 실린 자료는 교회 및 가정에서 (교회 부름을 포함하여)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자 자료는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 North Temple St., FL 13, Salt Lake City, UT 84150, USA; email: cor-intellectualproperty@ChurchofJesusChrist.org.
For Reader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September 2019 Vol. 43 No. 9. LIAHONA (USPS 311-480) English (ISSN 1080-955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 (American Express, Discover, MasterCard, Visa) may be taken by phone or at store.ChurchofJesusChrist.org. (Canada Post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ll UAA to CFS (see DMM 507.1.5.2) NONPOSTAL AND MILITARY FACILITIES: Send address changes to Distribution Services,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USA.

사진 : UNSPLASH, 앤드루 벨시, 어성의 사진 : UNSPLASH, 브리아나 토추르, 멩에 그려진 책표지 사진 : GETTY IMAGES, 라이언 에드워드 베네트/GETTY



외설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본

부 초등학교 회장인 조이 디 존스 자매는 사랑이야말로 외설물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말한다. “실제로 요즘 유행하는 말처럼 ‘외설물은 사랑을 죽입니다’만, 사랑이 외설물을 죽인다는 사실도 기억하십시오.” 다음은 사랑을 표현함으로써 외설물의 영향에서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다.

보호한다:

“나는 너를 사랑해”

자녀가 안전하고 사랑받는다고 느낄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한다.

반응한다:

“여전히 난 너를 사랑해”

외설물에 대해 자녀와 이야기하며 그들이 가진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의논하도록 권유한다.

치유한다:

“나는 너를 언제나 사랑할 거야”

자녀가 외설물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신시킨다.

36쪽의 기사에서 이 주제에 관한 존스 자매의 더 자세한 설명을 읽어 볼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 자녀와 함께 성에 관해, 그리고 외설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에 관해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한다.
- 자녀가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모든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에는 안전 장치가 있어야 하며, 이런 안전 장치는 청소년과 성인들에게도 필요하다.
- 누구라도 미디어 기기를 가지고 방에 홀로 있어서는 안 된다.
- 외설물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는 자녀를 나무라지 않는다.



“자녀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그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제이슨 에스 캐롤 교수, 브리검 영 대학교 가정생활학과



월슨 디 파올라

우루과이 산호세



월슨은 오토바이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었다. 이듬해에는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 홀로 남은 월슨은 어린 두 딸을 데리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다. 월슨은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더 깊은 비탄에 잠길 수도 있었던 그는 그렇게 하는 대신 진리를 찾기 시작했다.

코디 벨, 사진작가

여러 의문이 들었다. 나쁜 일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 내 나름대로는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며 살았는데, 아내는 내 곁을 떠나 저세상 사람이 되었고 나는 휠체어에 의지하는 몸이 되었다. 거기에서 우리 딸은 머리에 생긴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아야 했다. 인생은 아무런 목적이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나는 진리를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여러 종교를 알아보던 중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를 찾게 되었다. 나는 이 교회가 참되다고 느꼈다.

이제 나는 우리가 지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있음을 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계획의 일부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하신 구주가 계시다. 그 지식이 나에게 힘을 준다. 이제, 나는 인내하며 계속 전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나에게 목적은 있다. 나는 내가 합당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면 가족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

더 알아보기

복음 자료실 또는 ChurchofJesusChrist.org/go/10196에 있는 이 기사의 온라인 버전에서 다른 사진들을 포함하여 월슨의 신앙 여정에 관해 더 자세히 알아본다.

신앙의 초상에 원고를 제출하는 방법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에 관한 간략한 설명과 고화질 사진을 liahona.ChurchofJesusChrist.org 로 보낸다.

성역의 원리

성역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성역이란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뿐만 아니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을 말한다.(로마서 12:15)

성역에 관해 생각할 때, 우리는 궁핍한 이들을 돕는 일을 생각하기 쉽다. 우리는 사별한 여성을 위해 정원을 가꾼다거나, 환자에게 음식을 가져다준다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돈이나 물건을 가져다주는 일을 이야기한다. 우리는 바울이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한 권고를 기억한다. 하지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한 그 구절의 첫 부분에도 충분히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로마서 12:15) 우리가 성역을 베푸는 사람들의 성공을 축하하거나 힘든 시기에 그들이 기쁨을 찾도록 도움으로써 함께 즐거워하는 것도 구주께서 하시듯이 성역을 베푸는 일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다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부여하신 선한 일에 초점을 맞추려 할 때 도움이 될 세 가지(그리고 피해야 할 한 가지) 제언이다.

1. 인식한다

보니 에이치 코든 본부 청년 회장은 우리가 성역을



여러분의 경험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성역을 베푸는
경험이나 성역을 받은 경험을 보내 주십시오.
liahona.ChurchofJesusChrist.org에서
“기사나 피드백 제출”을 클릭하십시오.

베푸는 사람들의 짐과 어려움뿐만 아니라 그들의 장점과 재능, 성공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 준다. 코든 회장은 우리가 “그들의 상황을 알고, 그들의 희망과 염원을 지지해 주는 대변인이자 막역한 친구”가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¹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구주께서 당신의 우편에 있게 될 자들이 이렇게 물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나이까?](마태복음 25:37-38)

코든 자매는 이렇게 말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는 ‘보고’입니다. 의인들은 살피고 주의를 기울이는 중이었기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도움을 주고 위로하고 축하하며 잠재력을 볼 수 있도록 살피는 눈을 가질 수 있습니다.”²

2. 축하할 일을 찾는다

성공이 크든 작든 축하해 준다. 그런 성공으로는 암을 이겨 내거나, 이별의 고통을 극복하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잃어버린 구두를 찾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후 한 달을 견뎌 냈거나, 설당을 끊고 일주일 버텨 낸 일 등을 들 수 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전화로 축하하거나 카드를 보내거나 함께 외출해서 점심을 먹는다. 축복을 나누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며, 다른 사람들의 축복과 성공을 축하함으로써 “우리 형제들의 기쁨 안에서 ... 기뻐[한다.]”(앨마서 30:34)

ILLUSTRATIONS BY AUGUSTO ZAMBONATO



구주의 모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주 다른 사람들의 행복에 즐거워하셨다. 주님은 가나에서 있었던 결혼식에 참석하셨다. 그곳에서 그분은 그 기쁜 날을 축하하셨을 뿐만 아니라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 (요한복음 2: 1~11 참조) 우리도 성역 대상자들의 삶에 특별한 행사가 있으면 거기에 참석하도록 노력할 수 있다.

우리는 또한 구주께서 다른 사람들의 의로움에 기뻐하시는 모습도 본다. 주님은 니파이인들을 방문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신앙으로 인하여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제 보라, 나의 기쁨이 충만하다.” (제3니파이 17:20)

3. 주님의 손길을 알아본다

때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들이 즐거워할 일을 인식하도록 돕는 것을 의미한다. 살면서 어려운 일이든 기쁜 일이든 어떠한 일이 생기더라도 그에 상관없이 돕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아시며 우리를 고양시켜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 이 단순한 진리는 놀라운 기쁨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자신의 인생에서 주님의 손길을 어떤 식으로 목격했는지를 이야기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그들의 삶에서 주님의 손길을 알아보도록 도울 수 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도우셨는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간증을 통해 사람들은 주님이 어떻게 자신들을 도우셨는지 인식하고 인정할 수 있게 된다. (모사이야서 24:14참조)

4. 즐거움을 느끼는 우리의 역량을 제한하지 않는다

불행히도, 우리는 때때로 사람들과 즐거워할 수 있는 자신의 역량을 제한하기도 한다.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현재 자신의 삶이 불안정할 때 특히 그렇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복에서 기쁨을 찾는 대신 비교를 하는 실수를 저지른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쿠엔틴 엘 쿡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축복을 비교하는 것은 기쁨을



몰아내는 일이나 거의 같습니다. 감사와 시샘을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³

이에 대해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 “어떻게 하면 거의 모든 사람이 공통으로 가진 그러한 경향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 자신이 받은 수많은 축복을 세어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 성취한 것에 박수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며, 봉사야말로 지금까지 마음을 위해 처방된 운동 중에서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⁴ 우리는 비교하는 대신 우리가 성역을 베푸는 사람들을 칭찬할 수 있다. 그들이나 그들의 가족에게 감사하는 바를 허물없이 나눈다.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지체이기에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고린도전서 12:26)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인식하고, 그들의 크고 작은 성공을 축하하며, 그들이 주님의 손길을 인식하도록 돕고, 질투심을 극복할 수 있다. 그리하여 그들이 받은 축복과 재능, 행복에 대해 진심으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다. ■

주

1. 보니 에이치 코든, 「목자가 됨」, 『리아호나』, 2018년 11월호, 75쪽.
2. 보니 에이치 코든, 「목자가 됨」, 76쪽.
3. 쿠엔틴 엘 쿡, 「기뻐하라!」, 『리아호나』, 1997년 1월호, 29쪽.
4. 제프리 알 홀런드, 「또 다른 탕자」, 『리아호나』, 2002년 7월호, 71쪽, 번역 수정.

행하도록 권유함

여러분의 성역 대상자들을 생각해 본다. 그들은 어떤 재능과 강점을 가지고 있는가? 그들이 어떤 기회 또는 성공을 경험했는가? 어떻게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들을 칭찬하거나 격려할 수 있는가?





복음의 관점이 주는 축복

복음의 관점은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개인적인 유혹에 대처하는 방법을 더 명확히 알려 준다.

복 음의 관점은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개인적인 유혹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더 명확하게 알려 줍니다. 우리는 왕국의 열쇠가 회복되고 “땅끝까지 복음이 굴러 나아가기를, 마치 손대지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굴러 나아가 드디어는 온 땅을 가득 채우듯 하리라”라는(교리와 성약 65:2)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직접 목격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경륜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예언은 구약 시대에 다니엘에게 주어졌으며, 이후 이 경륜의 시대에 다시 주어진 것인데, 오늘날 교회에 3,300개가 넘는 스테이크가 조직된 것을 보면 이 예언은 성취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교회 회원 수는 210만 명에서 1,600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¹

이러한 급속한 성장과 변화만큼이나 저에게 인상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 계시된 하나님의 통치 계획을 포함하여 복음의 원리와 관습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계획에 따라 스테이크 조직은 “진노가 온 땅에, 섞인 것이 없이 쏟아져 내릴 때 폭풍우를 피하고 진노를 피할 방어진이 되[는] 피난처”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교리와 성약 115:6)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관대한 축복을 베푸십니다. 축복은 계명에 순종한

필멸의 존재인 우리의 가장 큰 기적 중 하나는 영성과, 다른 중요한 삶의 역할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능력입니다.

결과이며, 계명을 지키는 것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하는 일임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배워야 할 귀중한 교훈입니다. 이와 같은 복음 원리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여기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두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저는 제일회장단 제1보좌인 델린 에이치 옥스 회장님이 2015년에 이 두 가지 요점에 관해 청년 성인들에게 이미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복음의 관점을 유지한다

옥스 회장은 “관점이란 모든 사실을 의미 있는 관계, 즉 전체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²

복음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는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우리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다.(교리와 성약 76:24 참조)
-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과, 목적을 지니고 이곳 지상에 왔다.(니파이후서 2:27; 10:23 참조)
- “모든 것에 반대되는 것이 있음이 꼭 필요[하다.]”(니파이후서 2:11)
-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이시며 아버지께 우리를 변호하신다.(요한1서 2:1; 교리와 성약 110:4 참조)

복음의 관점이 우리 삶의 모든 면을 바라보는 렌즈가 된다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의 관점은 우리가 어떻게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개인적인 유혹에 대처할 수 있는지를 더욱 명확하게 알려 줍니다. 이것은 자신의 일생을 대하는 전반적인 태도, 그리고 살면서 내리게 될 다양한 결정에 분명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 따라,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가 매주 성찬을 취하고 매일 경전을 공부하고 당신께 기도하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는 또한 사탄은 구주를 따르거나 성신의 조용한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 않도록 우리를 유혹하려 하는 것도 압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대적이 자신의 노력에 저항하는 우리의 선택의지와 능력을 약물이나 외설물과 같은 중독을 통해 빼앗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음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는 복음이라는 렌즈를 통해 가정을 이루는 것, 즉 결혼을 선택하고 의로움 속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 덕분에 우리는 눈을 뜨고 대적이 가정을 완전히 파괴하고 성 역할을 혼란스럽게 하려 하며, 가정을 이루고 세우는 일에 사회가 부여하는 가치를 축소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적인 균형을 유지한다

옥스 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청년 성인들이 그런 관점, 즉 전체적인 시야로 볼 때, 그들이 자신의 삶에서 영적인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의 매력적인 것 중 일부를 금하고, 그와 더불어 구주께 더 가까이 가는데 필요한 일들을 해야 합니다.”³

한편, 살다보면 긴박한 문제가 많이 일어나며,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크고 작은 다양한 일들도 생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은 관심과 집중, 그리고 목표가 필요합니다. 각자의 목록은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교육, 취업, 결혼, 정서적, 신체적 건강이 분명 들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어려움은 이와 같은 삶의 중요한 역할과 우리의 영성 사이에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옥스 회장님은 또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에 관해 다음과 같이 권고하셨습니다. “계획된 다른 주요 활동에 집중하는 동안 영적으로 굶주리지 않도록 시간을 잘 분배해야 합니다. 이 원리로 청년 성인들이 교회 모임에 참석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매일 경전을 공부하며, 무릎을 꿇고 매일 가족 기도를 하며, 교회 부름에 봉사하기 위해 권고를 따르는 것이 왜 특별히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⁴

개인적이고 다양한 욕구 가운데서 인생에서 추구하는 바와 도전이 영성과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할 때 우리는 이러한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룰 수 없는 일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토마스 에스 몬슨 (1927~2018) 회장님이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의 자질은 주님께서 채워 주신다.”라고 권고하시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⁵

저는 이것이 특히 교회 회원들에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벽차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필멸의 존재인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큰 기적 중 하나는 영성과 다른 중요한 삶의 역할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능력이 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 기적은 단지 여러분의 영성과 삶의 중요한 역할을 현 상태로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두 가지 중요한 영역에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방법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주된 이유는 주님이 버팀목이시기 때문입니다. 균형의 절대 중심점은 그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신성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런 결과는 균형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적절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때 가능합니다.

저의 관찰과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보면, 우리는 일생에 걸쳐 어느 한쪽이나 다른 쪽으로 더 기울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인생에서 균형을 유지하려면 끊임없는 노력과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십시오.

흥미롭게도, 어느 쪽이든 한 쪽으로 쏠려 균형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교회 봉사는 교회 모임 시간에만 하고, 학교나 직업적인 일에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⁶

그러나 여러분이 적절한 영적 평형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을 여러분의 버팀목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이다

복음의 관점을 유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근본적인 진리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복음의 기본 원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하늘 부모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분들이 모든 면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래전에 제가 청소년 때 저의 청소년 지도자 중 한 분이었던 새드 칼슨 형제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돌아가신 새드 형제님은 성장기의 저에게 큰 영향을 주신 분입니다. 새드 형제님은 대공황 시기에 열네 자녀 중 아홉째로 자랐습니다. 형제님의 가족은 농사를 짓고 소를 기르는 일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당시는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였고, 그 가족의 가장 큰 자산은 자신들이 키우는 소 떼였습니다.

어린 시절의 새드가 맡은 책임 중 하나는 소 떼를 돌보는 것이었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좋은 먹이를 찾아 소 떼를 몰고 가기도 했습니다. 어린 소년에게는 힘에 부치는 일이었습니다. 어린 새드가 그래도 그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은 별다른 지시를 하지 않아도 무얼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똑똑한 소몰이 조랑말

복음의 관점을 유지해야 함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렌즈를 통해 주변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덕분이었습니다. 그 조랑말의 이름은 올드 스모키였습니다. 그런 올드 스모키에게도 단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절대로 붙잡히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든 자신에게 다가가려고만 하면 그 말은 일을 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도망을 쳤습니다.

어느 날, 어린 새드는 올드 스모키를 붙잡아 굴레를 씌우고 안장을 엮은 뒤 말에 올라타고 소들이 풀을 뜯는 목초지로 갔습니다. 땅은 건조했으며, 목초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새드의 눈에 목초지 바깥에 있는 철길 옆의 풀이 더 길고 푸른 것이 보였습니다. 어린 새드는 올라타가 처진 목초지 바깥으로 소 떼를 몰고 가서 철길을 따라 좋은 풀을 먹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는 올드 스모키의 도움을 받아 소 떼를 목초지 바깥으로 몰았고, 그곳에서 소들은 이리저리 철길을 따라 오가며 더 싱싱하고 푸른 풀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만족한 소들이 먹이를 잘 먹고 있는 것처럼 보였으므로, 새드는 말에서 내려 굴레의 고삐를 깔고 앉아 주변 경치를 즐기며 혼자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그런데 푸른 풀밭에서 풀을 뜯고 싶었던 올드 스모키가 결국 달아나면서 새드는 깔고 앉아 있던 고삐를 놓쳐 버렸습니다.

이 목가적이고 평화로운 순간은 멀리서 들려오는 갑작스러운 요란한 소리에 박살이 났습니다. 새드의 눈앞에서 한가롭게 소 떼가 흩어져 있던 바로 그 철길로 기관차가 경적을 울리며 질주해 왔습니다! 새드는 그 순간 빨리 움직여서 소 떼를 다시 목초지로 몰아 돌진하는 기차로부터 멀리 떨어뜨리지 않는다면 소들과 자신의 가족에게 어떤 끔찍한 결과가 미칠지 깨달았습니다. 신뢰를 받고 있던 자신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되면 그런 자신을 절대 용서할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새드는 벌떡 일어나 올드 스모키의 고삐를 잡으려 뛰어갔습니다. 올드 스모키는 새드가 오는 것을 보고는 잡히지 않으려고 재빨리 몸을 피했습니다. 숨도 차고 절망적이었지만, 새드는 죽어 버린 소들과 가족이 처할 비극적인 광경이 떠올라 서둘러야만 했습니다.

나중에 새드 형제님은 당시에 일어난 일을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초등회 선생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고,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것들을 더 확실히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무릎을 꿇고 소들이 무사히 철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들린 것은 아니었으나 새드의 마음속에 분명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소들이 올드 스모키 옆을 지나가는 것을 잘 보아라. 그래도 말은 움직이지 않지. 그러니까 … 무릎은 꿇었으니 이제 손으로 바닥을 짚어라. 너도 소인 척하면서 올드 스모키에게로 기어가라.’

새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했고, 말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말의 고삐를 움켜잡았고 말을 올라타고 이끄러 가서 등에 올라탄 뒤, 소들을 목초지 안으로 몰아넣기 위해 바람처럼 달려갔습니다. 올드 스모키는 평소와 달리 매 순간 매우 눈부신 활약을 했습니다.”

새드 형제님은 나중에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에야 절박했던 그 순간에 드렸던 그 기도가 분명하게 응답되었다는 것을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새드 형제님은 “천사들이 내 능력 이상으로 올드 스모키를 도왔고, 그 덕분에 우리 가족은 비극을 피했다.”라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형제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받은 많은 영의 속삭임 중 첫 번째였습니다. ‘또 너희가 받을 줄로 믿으며, 옳은 것으로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보라, 너희에게 주어지리라.’(계3니파이 18:20)”

우리는 모두 기차가 오기 전에 안전하게 대피시켜야 할 소 떼가 있습니다. 위험은 다양한 모습과 형태로 옵니다. 어떤 경우는 새드 형제님의 위험한 상황만큼이나 심각하며, 우리나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영혼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가 처하는 다른 상황들은 그렇게 심각한 결과를 낳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무겁게 짓누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우리는 모두 살면서 역경과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지상에서 해야 할 경험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저는 물몬경에 나오는 이 말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어떤 땅에 있든지, 모든 백성을 생각하심을 우리가 보나니, 참으로 그는 자기 백성을 헤아리시며, 그의 자비의 심정은 온 땅 위에 있다.”(엘마서 26:37)

그 백성은 바로 우리 모두를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리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참으로 큰 위안을 줍니다.

신앙과 희망, 그리고 복음의 관점

요약하면, 복음의 관점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렌즈를 통해 주변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영적인 균형을 유지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다양한 삶의 역할에서 도전과 기회를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에 대한 우리의 신앙과 함께 균형을 이룰 때, 가장 잘 이겨내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리라는 신앙과 소망을 가지십시오. 이러한 지식은 지상 사명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인 도전에 우리가 당당히 맞서도록 도움을 줍니다. ■

2017년 9월 19일에 브리검 영 대학교 하와이 캠퍼스에서 전한 영적 말씀, “복음의 관점”에서 발췌함.

주

1. 「2018년 통계 보고서」, 『리아호나』, 2019년 5월호, 112쪽 참조.
2. Dallin H. Oaks, young single adult fireside, Feb. 8, 2015, Salt Lake City, Utah. (미출간)
3. Dallin H. Oaks, young single adult fireside, Feb.8, 2015.
4. Dallin H. Oaks, young single adult fireside, Feb. 8, 2015.
5. 토마스 에스 몬슨, 「봉사하도록 부름 받음」, 『성도의 빛』, 1996년 7월호, 44쪽 번역 수정.
6. Dallin H. Oaks, young single adult fireside, Feb. 8, 2015.
7. 새드 칼슨, 개인 서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들을 더 잘 보호하고 힘을 실어 주기 위해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머리사 위드슨
교회 잡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양한 계층을 가르치셨으나 그중에서도 특별히 어린이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주님은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에도 어린이들에게 주의를 기울이셨고, 어린이들을 불러 개인적으로 축복하셨으며, 어린이를 해치는 사람들을 비난하셨다. 그분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부활하신 후에 미 대륙 사람들에게 오셨을 때 주님은 “너희의 어린 자들을 보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하늘이 열리고 사랑을 지닌 천사들이 내려와 어린이들을 둘러싸며 그들 주위에 원을 지어 불로 그들을 둘러쌌다.(제3니파이 17:23~24 참조)

오늘날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이 세상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어린이들이 계속 하늘의 불에 둘러싸여 있기를 바랄지도 모른다. 전 세계에서 4명 중 1명은 어린 시절에 학대를 당했으며, 장애인과 같은 특정 취약 계층을 고려한다면 그 평균 수치는 더욱 올라갈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이다.

“마음속에 사랑하는 자녀를 그려 보십시오.” 본부 초등학교 회장인 조이 디 존스 자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러분이 그 아이에게 ‘나는 너를 사랑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그들을 보호하여 그들이 최고의 자아를 실현하며 삶의 도전에 맞설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다는 의미입니다.”³

아마도 구주의 모범을 더욱 면밀히 살핀다면, 우리의 삶에서 어린이를 더 잘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니파이인들을 방문하셨을 때, 어린이들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축복하셨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각각의 아이들을 알아야만 한다.

있습니다.”라고 말했다.⁵

부모가 자녀와 나눌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그들을 지킬 수 있는 대화 중 하나는 신체에 관한 것이다. 그런 대화에서 우리는 신체 부위를 가리키는 정확한 단어, 위생에 대한 정보 및 향후 몇 년 안에 일어날 변화 등을 다루어야 한다. 성에 관해, 그리고 육체적이며 정서적인 친밀감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계획에서 얼마나 멋진 부분인지 이야기해야 한다. 또한 학대와 외설물과 같은 주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대화는 자녀가 가지고 있는 질문에 따라, 또한 그 아이의 나이에 맞게 해야 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 번 대화하면서 자녀의 성장과 이해의 폭에 맞추어 추가로 정보를 주는 것이 이상적이다.(이 기사의 끝부분에는 참고할만한 유용한 자료가 나와 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따로 시간을 내셨다

예수님은 시간을 따로 내어 어리고 연약한 이들에게 주의를 기울이셨다. (마태복음 19:14 참조) 우리도 자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기 위해 시간을 따로 마련할 수 있다.

존스 자매는 “사랑을 더 많이 느낄수록 자녀는 더 쉽게 마음의 문을 엽니다. … 자녀가 우리에게 오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대화를 시작해야만 합니다.”라고 말했다.⁴

한 어머니는 매일 저녁 자녀에게 “오늘 들었던 말 중에 알아듣지 못한 말이 있었니?”라고 물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의 자녀들은 모르는 것이 있으면 먼저 인터넷에서 답을 찾으려 할지도 모른다. 인터넷은 즉각 도움을 주면서도 판단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모인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가 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근원임을 확신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자녀가 좀 거북한 것을 말하더라도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 자녀가 외설물을 보았다고 고백할 때 우리가 감정을 폭발시켜 버리면, 아이들은 다시는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사랑으로 대응할 때, 우리는 어떤 것이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기를 바란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존스 자매는 “작은 문제들이 생겼을 때 애정 어린 대화로 건강한 대처 방식의 기초를 다져 놓으면, 큰 문제가 생겼을 때도 소통의 끈을 계속 이어 갈 수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위해 모범을 보이셨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완전한 모범을 보이셨다. (요한복음 8:12 참조) 성인인 우리 또한 모범을 보일 기회와 책임이 있다. 자녀가 안전하도록 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직접 안전한 선택을 하는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어린이는 부모가 남을 어떻게 대하며 남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대하게 하는지 눈여겨본다. 여러분이 자신이나 가족을 위협에 처하게 하는 중독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그것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부디 도움을 구하라. 감독이나 상호부조회 회장뿐만 아니라 행정 당국과 상담 전문가와도 접촉한다. 이들은 여러분이 교회와 지역

사회로부터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해 줄 수 있다.
여러분은 안전을 보장받고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다.

우리는 또한 영적인 힘에 주의를 기울이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
자녀가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가? 여러분이 경전을 읽고 있다는 것을 아는가? 여러분의 간증을 듣고 있는가? 여러분의 가족은 아침에 세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가?
(에베소서 6:11~18; 교리와 성약 27:15~18 참조)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변호하셨다

구주께서는 어린이를 해치는 자들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셨다.(마태복음 18:6 참조) 우리도 역시 생활 속에서 어린이들을 옹호할 수 있다.

세일회장단 제1보좌인 델린 에이치 옥스 회장은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을 대신해서 목소리를 높일 사람들이 필요하며 성인들의 이기적인 이익보다 아이들의 복지를 우선시할 의사 결정자가 필요합니다.”⁶

남을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의심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잠재적인 위협을 인식하고 안전을 위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 초등학교 지도자는 교회의 학대 예방 지침을 따라야 한다.⁷ 즉, 각 교실에는 두 명의 교사가 있어야 하고, 회장단의 일원이 공과반을 확인하는 보호 장치가 있어야 한다.

부모와 지도자는 함께 협의하고 특정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또 다른 예방책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많은 교회 건물에는 교실 문에 창이 있다. 만약 그렇지 않은 건물이라면, 수업 중에 문을 약간 열어 두거나 지역 시설 관리 담당자와 상의하여 창을 설치할 수 있는지 알아볼 수도 있다. 부름과 상관없이 모든 성인은 교회에서 주의를 기울이고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다. 가령, 복도를 서성이는 방문객을 환영하거나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어린이를 공과 반으로 돌아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슬프게도, 때로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로부터 상처를 받는다. 만일 교회나 다른 어느 곳에서든 아이들 간에 괴롭힘이나 부적절한 신체적인 접촉을 발견하면 그것이 어떤 종류든 간에 즉시 개입해야 한다. 지도자들은 모든 어린이가 안전할 수 있도록, 설령 대화하기 불편한 주제일지라도 관련된 가족들과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한다. 친절을 베푸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연민을 가지고 분명하게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어린이가 학대를 당했다고 생각되면, 그 문제를 행정 당국에

즉시 알려야 한다. 많은 국가가 위기 시에 개입하고, 정보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담 전화를 운영한다. 또한, 학대가 일어났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감독에게도 알려야 한다. 교회를 통해 어린이에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관련되어 있을 때 특히 그렇다. 가해자가 추후에 어린이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에 더하여, 감독은 희생자들을 위로하고 지지하며 가족 서비스로부터 추가 도움을 받도록 도울 수 있다.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하나씩 축복하셨다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아셨고 개별적으로 축복해 주셨다.(제3니파이 17:21 참조) 마찬가지로, 우리도 각 어린이를 알아야 하고, 구체적으로 그들을 돕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건강 문제가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 교회를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을까? 장애가 있는 초등학교 어린이를 돕기 위한 계획이 있는가? 초등학교 공과를 가르칠 때 다양한 가정 상황을 배려하고 있는가? 수용의 폭을 넓히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나누는 메시지에 인종차별주의적인 의견, 다른 문화에 대한 경멸적인 발언,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에 대한 비난의 태도가 들어 있어서는 안 된다. 어느 초등학교 반에 다른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언어에 서툰 소년이 있었다. 교사는 그 소년이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유인물을 두 언어로 인쇄했다. 단순하지만 사려 깊은 행동으로 어린이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개별적으로 알고 돌보고 있음을 보여 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은 그들이 따라야 할 모범이 될 수 있다.

일부 어린이들은 긴급한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얼마간의 감정 기복은 성장기의 정상적인 부분이지만, 만약 어떤 어린이가 몇 주 동안 화가 나 있거나 말이 없거나 우울해한다면,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기도와 경전 공부와 같은 의로운 습관이 중요하지만, 최근에 정신 질환이 생겼거나 밝히기 힘든 정신적 외상과 씨름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많은 경우 더 많은 지지가 필요하다. 상황을 무시한다고 해서 일이 더 잘 풀리지는 않는다. 여러 분야에서 감독은 가족 서비스나 다른 서비스 제공자를 통해 상담을 하도록 개인과 가족에게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예수님은 어린이들에게 힘을 실어 주셨다

예수님은 어린이를 보호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힘을 실어 주셨다. 그분은



어린이들이 우리의 모범이라고 말씀하셨다.(마태복음 18:3 참조) 주님이 미 대륙을 방문하신 후에는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에게 “기이한 일”을 가르쳤다.(제3 니파이 26:16)

우리는 주변 어린이들에게 영이 그들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그런 다음에는 결정을 내릴 때 영을 따르도록 가르침으로써 그들에게 힘을 실어 줄 수 있다. 그렇게 우리는 그들이 자신의 행동 지침이 될 내부 여과 장치를 개발하도록 도울 수 있다. 존스 자매는 이렇게 가르쳤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자기만의 내적 논리를 만들어 [안전한 결정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돕는 것입니다.”⁸ 다음은 다른 가족들이 힘을 얻을 수 있었던 몇 가지 아이디어들이다.

- 한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에 주의를 기울이고 “속임수를 쓴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조심하도록 가르쳤다. 이 가르침은 어떤 사람들이 그녀의 아들을 화장실로 데려가려고 피었을 때, 그 아이가 경각심을 느껴 거부함으로써 효과를 발휘했다.
- 어떤 가족들은 위험한 상황에 빠졌을 때 따를 대처 계획을 미리 세워 둔다. 예를 들어, 한 가족은 ‘끄고 말하기’라는 위험 대처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은 컴퓨터 모니터에 해로운 이미지가 나타나면 바로 모니터를 끄고 부모에게 알리는 것이었다. 그 가족의 아이들은 유해 매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 또 다른 가족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당장 데리러 와 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 때 쓸 암호를 만들었다.
- 누군가 자신에게 불편한 느낌이 드는 일을 하도록 설득할 때 “싫어요!”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도록 자녀들을 도와줄 수도 있다. 모든



어린이는 도움을 청할 수 있으며, 자신이 안전할 때까지 계속 요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성인으로서의 우리의 역할

제3니파이 17장의 장면을 떠올려 보자. 그 장에서 예수님이 “그들의 어린아이들을 하나씩 안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며,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께 기도 [하셨을 때] ... 저들이 불로 둘러싸였으며, 천사들이 그들에게 성역을 [베풀었다.]”(21, 24절) 아마도 이 이야기의 요점은 어린이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에 더하여 성인으로서의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데 있을 것이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돌보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어린이들을 둘러싸고 돌보는 천사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우리의 완전한 모범으로 바라보며, 어린이들을 사랑과 보호로 감싸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주

1. 이러한 이야기들을 경전에서 찾으려면 이 글의 각 절의 머리글에 있는 경전 구절을 참조한다.
2. See “Child Maltreatment (Child Abus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int/violence_injury_prevention/violence/child/en.
3. 조이 디 존스, 「외설물 문제를 다루는 법: 보호하고, 반응하고, 치유합니다,」 「리아호나」, 2019년 10월호, 38쪽.
4. 조이 디 존스, 「외설물 문제를 다루는 법」, 39, 40쪽.
5. 조이 디 존스, 「외설물 문제를 다루는 법」, 39쪽.
6. 맬린 에이치 옥스, 「아이들을 보호하십시오,」 「리아호나」, 2012년 11월호, 43쪽.
7. See “Preventing and Responding to Abuse,” newsroom.ChurchofJesusChrist.org.
8. 조이 디 존스, 「외설물 문제를 다루는 법」, 40쪽.

지도자를 위한 교회 참고 자료

지도자들이 학대와 같은 어려움에 처한 회원들과 상담할 때 다음의 교회 웹페이지가 도움이 될 것이다. counselingresources.ChurchofJesusChrist.org에 들어가 본다.

기타 온라인 자료

- Abuse.ChurchofJesusChrist.org
- 부모 지도서, ChurchofJesusChrist.org
- OvercomingPornography.lds.org
- “학대”, 복음 주제, topics.ChurchofJesusChrist.org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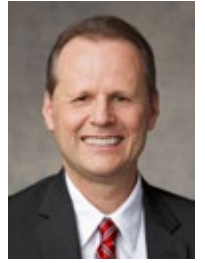
가정에서

- 유해 매체를 멀리하거나 위험한 상황을 피하기 위한 계획을 가족이 함께 세운다.
- 자녀의 나이에 맞추어 신체, 성, 애정 행위에 관해 이야기한다.

교회에서

- 모든 공과 교실에는 두 명의 성인이 있어야 하는 것 등 어린이를 가르치는 일과 관련된 교회 지침을 따른다.
- 친절을 베푸는 문화를 장려하고 괴롭힘을 허용하지 않는다.





조니 엘 코흐 장로
칠십인 정원회

가능성을 믿느냐 마느냐 : 그것이 문제로다

우리는 판단력을 행사하도록 요구받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부당하게 꼬리표를 붙이거나 낙인을 찍어서는 안 됩니다.

몇 년 전에 저는 아내와 함께 덴마크의 헬싱키에 있는 크론보르 성에 갔습니다. 그
성은 셰익스피어의 연극 「햄릿」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우리는 성을 거니는 동안 그
연극의 대사와 장면들을, 특히 햄릿이 말한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는
독백을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이 질문을 “가능성을 믿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로 바꾸어서 자문해
본다면 훨씬 더 적절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전을 수용한다

불행히도 우리는 남들에 관해 말할 때 자주 꼬리표를 붙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 “브라운 장로는 게으른 선교사야.” 이렇게 말하는 대신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브라운 장로가 요즘 들어서는 별로 열심히 하지 않지만, 그래도 나는 그가 더 발전할
거라고 믿어.”
- “메리는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야.”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메리가 종교에 관심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간증을 전한다면 영을 느끼게 될지도 몰라.”

누군가가 어떠어떠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결국 그 사람에게 꼬리표를 붙이거나
낙인을 찍게 됩니다. 변화되어 나아질 기회도 주지 않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어떠어떠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믿음을 나타내게 됩니다.

판단하는 것이 잘못된 일인가?

대부분의 성경 번역판에는 구주의 가르침이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마태복음 7:1) 그러나 조셉 스미스 역에는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불의하게 비판하지 말고 **의로운 비판을 하라.**”(조셉 스미스 역, 마태복음 7:1)

상황을 가늠하고 평가하고 분별하며 결정을 내릴 때, 사실 판단력을 행사하는 것은 용인되며, 심지어 우리는 그렇게 하도록 요구받습니다. 다른 사람과 교류할 때 의로운 판단력을 행사하는 것은 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결혼할 사람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신중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타인의 의도를 이해하기 위해 분별력을 행사해야 하며, 누군가가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도 평가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경전과 선지자의 말씀에 언급된 주님의 표준에 따라 언제나 사람들의 행동이나 특성을 분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에게 선입관을 갖고 쉽게 단정하거나 부당하게 꼬리표를 붙여서는 안 됩니다.

변할 수 있다

타인을 부정확하게 묘사할 때, 특히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변화할 수 없다는 식으로 암시한다면, 우리는 불의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주님의 속죄 희생으로 말미암아 발전할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주께서 보여 주신 다음과 같은

모범을 생각해 보십시오.

- 주님은 간음죄로 잡힌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요한복음 8:11)
- 주님은 당신 옆의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 중 한 명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하셨습니다.(누가복음 23:43)
-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가 당신을 세 번이나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의 잠재력을 보시고 지도하셨습니다.(마태복음 26:34 또한 요한복음 21:15~17 참조)
- 주님은 성도들을 박해한 사울에게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바울로 불리게 된 사울은 순종하여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사도행전 9:3~6 참조)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것에 관한 대화가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챔피언이 되실 것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 용서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마태복음 18:22) 그분은 지상에서 온전한 삶을 사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도 언젠가는 그분의 삶,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속죄 희생, 그분의 복음 의식을 통해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에게 대체 변화할 능력이 있는지 미덥지 않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구주와 그분의 속죄 권능이 미덥지 않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외형과 내면

살다 보면 사실 첫인상으로 판단하는 (그리고 판단받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첫인상만으로 판단하고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보지 못하면, 불의한 판단을 할 위험이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와는 중심을 보느니라.”(사무엘상 16:7) 예수님은 그 시대의 위선자들을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라고 묘사하셨습니다.(마태복음 23:27)

구주께서는 멋있고 품위 있는 겉모습을 부정적으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사람의 내면적 성품(도덕적, 영적 상태)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의 장엄한 성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 경내도 아름답지만, 그보다는 성전 내부에서 행해지는 의식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선교사들도 역시 복장 및 용모를 표준에 맞게 유지해야 합니다. 선교사들은 용모를 깨끗이 하고, 단정한 옷을 입고, 적절한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그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고 들을 사람들에게 좋은 모범을 보일 수 있습니다.

분별력을 행사하는 것

의로운 판단을 하고자 할 때 중요한 것은 분별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경전 안내서에는 분별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영의 힘을 통하여 어떠한 것을 이해하거나 아는 것. … 그것은 사람의

참 성격과 영적 나타남의 근원과 의미를 인식하는 것을 포함한다.”(경전 안내서, “분별의 은사”)

때때로 내면이 사악한 이들은 세속적인 겉모습을 이용하여 그들을 모방할 만한 가치가 있는 대상으로 생각하게끔 우리를 속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입니다.(이사야 5:21; 니파이후서 15:21) 구주께서는 이런 가식 너머를 보실 수 있었으며, 심지어 가장 미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 가운데서 강인한 성품과 정직한 마음의 의도를 분별하실 수 있었습니다.

엘마도 “[그들의] 가난으로 멸시를 받[았지만] ... 마음이 겸손하[여]” 축복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말할 때 이런 분별력을 행사했습니다.(엘마서 32:5~8 참조)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이] ... 영적으로 분별[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고린도전서 2:14)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으로 다른 사람들을 본다면, 우리도 분별력을 행사하여 의로운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의로운 판단

매일의 일상에서 우리는 가늠하고 평가하고 분별함으로써 판단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그 일을 의롭게 행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며 기꺼이 도움을 베풀고자 한다는 것을 말과 행동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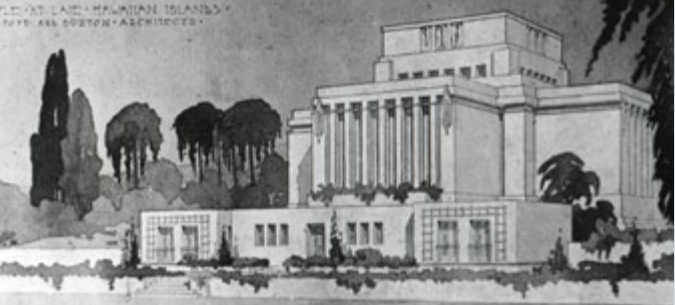
의롭게 판단하는 사람이 되려면, 확실히 사람의 외모보다는 성품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매일 우리가 보이는 모습과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첫인상을 만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외형에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의 높은 가치가 반영된다면, 대부분의 사람이 우리의 성품과 복음 메시지를 더 알아보고자 이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며 선생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의롭게 판단하도록 노력할 때 따를 완전한 모범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겉으로 보이는 것에 치우쳐 각 사람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간과하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





건축가 하이럼 포프와 해럴드 더블유 버턴이 그린 건물 투시도.
오른쪽: 성전 주위에 있는 네 개의 조각 장식 중 하나로 네 차례에 걸친 복음의 경륜의 시대를 나타낸다.



교회가 초기에 건축한 8개의 성전으로 장식된 점.
라이에 성전은 하단 중앙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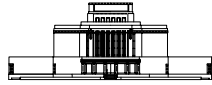


중간: 성전 헌납식을 위해 라이에에 온 히버 제이 그랜트 회장.
위: 라이에에서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왼쪽 맨 끝) 스미스 회장은 1915년 6월에 성전 부지를 헌납했다.



애버드 페어뱅크가 조각한 어머니와 아기 조각 장식.
왼쪽: 성전에 모인 회원들 (1920년).





하와이 라이에 성전: 100년 동안의 집합

100년 전에 헌납된
하와이 라이에 성전은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기
시작한 이래로 성도들이
집합하고 성전의 축복을 받는
장소가 되어왔다.

클린턴 디 크리스텐슨, 앤절라 알 크리스텐슨

저자들은 미국 유타주에 산다. 크리스텐슨 형제는 교회 역사부에서 일하고 있다.

예 수 그리스도 교회가 후기에 이루어야 할 위대한 사명 중 하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성전의 축복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것은 살아 있는 사람과 이미 죽은 사람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이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가르쳤다. “세상의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백성이 집합하는 목적은 주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주님의 집의 의식을 드러내어 보이실 수 있도록 그러한 집을 그분께 지어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¹

20세기의 여명이 밝아 오던 시절, 지상에서 운영되고 있던 성전은 단 네 곳에 불과했으며, 그것도 모두 유타주에 있었다. 따라서 성전 축복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직접 유타주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1919년에 변화가 일어났다. 1919년 11월 27일에 히버 제이 그랜트(1856~1945) 회장이 하와이 라이에 성전을 헌납한 것이다. 이를 통해 여러 나라 사람들이 성전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이 헌납은 회복의 과정에서 역사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하와이 라이에 성전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최초의 국제적인 성전이었다. 이 성전은 곧바로 하와이, 뉴질랜드, 사모아, 통가,

타이티, 일본, 호주에서 온 회원들에게 의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태평양과 아시아 전역에 걸쳐 교회가 계속 성장함에 따라 라이에 성전을 통해 축복을 받는 나라들도 계속 늘어났다.

올해는 휘장 양편에서 이스라엘을 집합하기 위한 이 중요한 이정표를 세운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사모아의 집합

사모아의 섬들은 하와이에서 약 4,023km 거리에 있다. 1919년에 존 큐 아담스 사모아 선교부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라이에 성전이 완공되자마자 우리 회원들은 성전에 가기 위해 이 세상에 있는 재물을 모두 다 모으기라도 할 듯한 기세로 열의를 보였습니다.” 한 예로, 아울렐리오 아나에는 20년 동안 자비를 들여 선교사로 봉사했는데, 그렇게 오랜 기간 희생한 탓에 그는 하와이로 갈 여비가 충분치 못했다. 그는 결국 가진 것을 모두 팔았고, 그렇게 미화 육칠백 달러 정도를 간신히 긁어모았다.²

1920년대에 아나에 형제와 다른 사모아인들은 라이에로 이주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희생했다.

레오타라는 가족은 1923년 새해 첫날에 하와이에 도착했다. 당시 일곱 살이었던 바일리네 레오타는 이렇게 기억했다. “성전을 처음 봤을 때 ...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했어요.”³

단 2주 뒤에, 바일리네의 부모인 아이바오와 마탈라는 엔다우먼트를 받고 부부 인봉을 받았으며, 자신들의 자녀들과도 인봉되었다. 레오타 가족은 50년 동안 주님의 집에서 충실하게 봉사한 후 “그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성전 근처”에 묻혔다.⁴ 현재 하와이 전역에는 그들의 충실한 후손 수백 명이 살고 있다.

불가능한 일

태평양에 사는 많은 회원이 조국을 떠나 하와이로 이주하는 동안, 다른 여러 나라의 수많은 와드와 지부는 단체로 떠나는 성전 여행 준비에 돌입했다. 이러한 형태의 영적 집합은 교회 회원들이 성전 의식을 받은 다음 조국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는 한 가지 방법이 되었다.

헌납식에서 그랜트 회장은 주님께 뉴질랜드와 태평양의 모든 섬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조상의 계보 기록을 모으고 성전에 가서 그들의 조상을 구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기를 간구했다.

성전 여행은 헌납식이 끝나고 반 년 후부터 뉴질랜드의 마오리족 성도들을 필두로 곧바로 시작되었다. 하와이에서 8,045km나 떨어진 곳에 살던 마오리족 성도들은 성전이 헌납되었다는 소식을 무척 기뻐했다.

와이마테 아나루, 헤에니 아나루는 성전으로 가는 첫 번째 여행단에 들어가기 위해 열의를 불태웠다. 그러나 그 일은 불가능해 보이기만 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난했으며, 여행 경비로 1,200 뉴질랜드 파운드나 되는 엄청난 금액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에겐 기적이 필요했다.

아나루 가족은 수년 동안 선지자의 권고를 따르며 조상의 계보 기록을 모았다. 그 기록들은 아나루 가족이 기적을 기다리는 동안 그대로 수북이 쌓여 있었다. 그들의 아들 위위니는 부모의 신앙을 알고 있었다.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아버지와 함께 성전 제단에 무릎을 꿇지 못하게 될까 봐 절망하신 적이 없었어요.”

기적이 일어났다. 와이마테가 뉴질랜드 정부로부터 대규모 토지 개발 사업 계약을 따낸 것이다. 이 사업에서 얻은 수익으로 그는 하와이로 가는 여행 경비를 충당할 만큼의 현금을 미리 받을 수 있었다. 와이마테와 헤에니는 해상 여행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 내고 1920년 5월에 14명의 성도와 함께 하와이로 떠났다. 그들은 자신의 엔다우먼트를 받고, 또한 인봉되었다. 불가능한 일이 현실이 된 것이다.

아나루 가족의 이야기는 주님의 집에서 의식을 받고 주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기 위해 하와이 라이에 성전으로 간 수천 명의 성도 중 단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 이러한 여행에는 커다란 희생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성도들은 성전 여행을 통해 더욱 강해졌으며, 교회를 이끌 준비가 되어 조국으로 돌아갔다.⁵

아시아의 영적 집합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일본에 교회가 재설립되자 그곳의 성도들도 아시아인 최초의 성전 여행을 준비했다. 1965년, 성전 의식을 받으려는 헌신적인 성도 165명이 한가득 탄 비행기가 도쿄에서 하와이로 날아갔다. 이 여행을 통해 일본에 있는 교회는 놀라운 힘을 얻게 되었다. 여행에 참여했던 회원 중 95%가 교회에 활동적으로 남았다. 그중 다섯

1850

1850년: 하와이 왕국에 회복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선교사들이 도착하다.

1855년: 조셉 에프 스미스가 하와이에서 자신의 첫 번째 선교 사업을 시작하다.



1865년: 교회가 라이에에 집회소를 지을 땅을 구입하다. 이 건물은 1916년에 성전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 옮겨진다.

1900

1915년: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이 하와이 라이에 성전 건립을 발표하다.



1919년 11월 27일: 히버 제이 그랜트 회장이 성전을 헌납하다. (위 가운데)

1920년: 와이마테 아나루가 뉴질랜드에서 성전으로 여행하다.

1925

1923년: 레오타 가족이 사모아에서 라이에로 이주하다. (아래)



명은 나중에 조국에서 성전 회장으로 봉사했으며, 그중 한 명은 일본인 최초로 교회 총관리 역원이 된 요시히코 기쿠치 장로였다.⁶

1970년에는 한국인 회원들로 이루어진 여행단이 라이에를 방문했다. 당시 지부 회장이었던 최옥환 형제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성전에 갔습니다. 성전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일깨워 주었습니다. 영원한 계획은 현실이 되었으며, 우리의 간증은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강화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성전에 올 기회를 갖게 되다니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⁷

우리의 돌아가신 친족들의 집합

한 나라에서 성전 의식을 행할 수 있게 되면, 그 의식에 수반되는 주님의 축복은 현재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한때 그 나라에 살았으나 지금은 화장 저편에 있는 사람들도 받게 된다. 수백 년 동안 꼼꼼하게 족보를 기록하는 문화를 이어 온 아시아 국가의 회원들은 이런 축복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콰이 순 룡의 부모는 중국에서 하와이로 이주했다. 1894년에 카우아이에서 태어난 그는 1944년에 맞은 50번째 생일날 침례를 받았다. 룡 형제는 교회에서 가족 역사를 가르쳤다. 그는 가족 역사반에서 이렇게

말했다. “어느 날 밤 저는 시현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시현에서 돌아가신 많은 친족이 자신들을 위해 일해 달라며 저에게 손짓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흘 뒤에 그는 중국에 있는 고모에게서 족보를 받았다. 거기에는 서기 1221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조상의 계보가 중국어로 22쪽에 걸쳐 기록되어 있었다. 그는 아들 글렌과 며느리 줄리나와 함께 그들의 조상을 위해 성전에서 수천 번의 의식을 모두 받았다. 나중에 글렌과 줄리나는 라이에 성전에서 회장과 메이트론으로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충실하게 봉사했다.⁸

계속되는 집합

아메리카와 아시아 사이 태평양의 길목에 세워진 라이에 성전은 많은 나라에 성전 축복의 문을 열어 주었다. 회원들이 성전 축복을 받은 후 교회를 세우기 위해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집합은 주로 영적인 집합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기회는 다양한 문화와 휘장 양편에 속한 사람들에게 회복된 복음이 전파되는 데 기여했다.

하와이 라이에 성전의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몰몬경의 선지자 야곱이 말한 “바다의 섬들 위에 있는 자들에게 하신 주의 약속이 크도다”라는(니파이후서 10:21) 예언이 성취되고 회복의 이정표를 목격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

주

1.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416쪽, 번역 수정.
2. See James Adams Argyle, comp., “The Writings of John Q. Adams,” 14, FamilySearch.org.
3. Vailine Leota Niko, in Clinton D. Christensen, comp. *Stories of the Temple in Laie, Hawaii*(2019), 70-71.
4. 아이바오 프랭크 레오타(1878~1966), FamilySearch.org.
5. See Christensen, *Stories of the Temple in Laie, Hawaii*, 64-65.
6. See Christensen, *Stories of the Temple in Laie, Hawaii*, 114-17.
7. Choi Wook Whan, in “Going to the Temple Is Greatest Blessing,” *Church News*, Apr. 17, 1971, 10.
8. See Christensen, *Stories of the Temple in Laie, Hawaii*, 166.

1950



1965년: 아시아 최초의 성전 여행을 위해 165명의 일본 성도가 하와이에 도착하다.

1970년: 한국 성도들이 일본 성도들과 함께 성전 여행을 하다.

1975



1978년 6월 13일: 스펜서 더블유 김볼 회장이 주요 시설을 확장하고 성전을 재헌납하다. 또한 김볼 회장이 앤 엘돈 태너 회장과 함께 폴리네시아 문화센터를 방문하다.(위 사진)

2000

2010년 11월 21일: 대대적인 개보수를 한 후,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이 성전을 재헌납하다.



2015



모니카에게 인도되다

브라질 상파울루에 살던 시절에 나는 그라사라는 특별한 자매님을 알게 되었다. 그라사는 사랑스럽고 친절했으며 모두에게 좋은 친구였다.

그라사는 나의 방문 교육 동반자이기도 했다. 그녀는 세 아이의 엄마였고 시간제 일을 했으며 자동차나 전화도 없었지만, 이중 그 어떤 이유도 그녀의 봉사를 멈추지는 못했다.

우리 집 발코니에서 그라사의 집 창문이 보였는데, 그녀는 시간이 날 때마다 빨간 천 조각을 그 창문에 걸어두었다. 그건 방문을 갈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였다. 그라사는 봉사하지 않으려는 핑곗거리를 찾은 적이 단



그라사는 빨간 천 조각을 집 창문에 걸어둠으로써 방문 갈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를 보냈다.

한 번도 없다. 나는 그라사가 내건 신호와 그녀가 보여 준 충실하고도 단순한 봉사의 훌륭한 모범에 대해 자주 생각해 왔다.

특히 한 가지 경험이 선명하게 기억난다. 우리는 우리가 담당하는 자매 중 한 명을 방문하러 가기 전에 방문을 준비하고 기도를 드렸다. 그 자매의 집에 가까워졌을 때, 우리는 원래 계획했던 집이 아닌 다른 자매의 집으로 운전해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자매도 우리가 방문하도록 지명받은 자매였고 두 어린 자녀를 둔 저활동 회원이었지만, 그 집을 방문할 계획은 없었다. 일이 그렇게 된 김에 우리는 문을 두드려 보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우리는 참을성 있게 기다려 보기로 했다. 마침내 그 자매가 문 밖으로 나왔고, 그녀는 지금은 바쁘다고 말했다. 그녀의 이름은 모니카인데, 모니카는 무척 지쳐 보였으며,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것만 같았다. 우리는 도움을 주기 위해 왔다고 말하자 그녀는 안으로 들어오라고 대답했다. 아기가 울고 있던 터라 모니카에게 아기를 돌보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동안 기다리고 있겠다고 말했다. 모니카가 아기를 데리고 위층으로 올라가자, 우리는 방들을 청소하고 눈에 보이는 모든 옷가지를 개켜 두기 시작했다.

말끔해진 집을 본 모니카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우리에게 마음을 열고 이런저런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우리는 모니카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우리는 상호부조회 회장님에게 모니카의 어려움에 대해 전달했다. 그 주 일요일에 모니카는 교회에 왔다.

모니카는 교회에서 활동적으로 지내며 행복한 자매가 되었고, 우리는 사랑과 관심 어린 마음으로 계속해서 그녀에게 성역을 행했다. 모니카의 어려움이 다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교회 안에서 생활한 덕분에 그녀는 더 큰 신앙과 용기로 그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었다.

함께 봉사하는 동안 그라사가 보여 준 모범에 정말 감사하다. 우리는 인도받기 위해 기도했으며, 하나님은 우리를 모니카에게로 인도해 주셨다. ■

호자나 소아레스, 미국 유타주





그들은 내 마음속에 씨앗을 심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인생이 끝나면 나는 어디로 가는가?

스물아홉 살 때 내 머릿속에는 이런 질문들이 계속 자리하고 있었다.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나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첫 아들을 죽음으로 떠나 보내고서 슬픔에 잠겨 있었다. 내가 키워야 할 아이가 셋이 더 있었고, 삶은 여러 시련으로 가득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두 명의 젊은 선교사들을 우리 집으로 인도하셔서 내가 품은 의문에 대한 답을 주기 시작하셨다. 내가 그들을 집안으로 맞아들이자 선교사들은 혹시 삶에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는지를 내게 물었다. 나는 부모님과 아들 이야기를 꺼냈다. 나는 만약 모든 게 죽음으로 끝이 나는 거라면 아이를 낳고 가족을 이루는 것은 부당한 일 같다고 말했다. 나는 내가 부모님과 아들을 언젠가 다시 만날 수는 있을지 물었다.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다. “마르타 자매님, 자매님의 가족은 영원할 수 있어요.”

가슴이 기쁨으로 벅차올랐다. 나는 더

알고 싶었다. 다음에 다시 우리 집을 찾은 그들은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해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선교사들은 물몬경을 주면서 그 책을 읽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분께 여쭙 보라고 말했다. 나는 그 요청을 받아들였다.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의 응답이 마치 햇살처럼 분명하게 다가왔다. 나는 물몬경이 참되다는 사실을 가슴으로 알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는 일자리를 바꾸면서 선교사들의 연락처를 잃어버렸다. 그 후로 여러 달이 지나는 사이에 나는 이혼을 했고,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애를 썼다.

그리고 나중에는 재혼을 했다. 어느 날, 남편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함께하시던 생활이 그림다는 말을 꺼냈다. 우리는 남편이 한때 참석했던 교회에 가 보기로 했다. 교회 건물에 들어섰을 때, 현관 옆 탁자 위에 놓인 물몬경이 눈에 띄었다. 그곳은 내가 예전에 소개받았던 바로 그 교회였다! 나는 그곳에서 느낀 영이 정말 좋았다. 교회를 나선 후, 나는 남편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침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나는 나를 맨 처음에 가르쳤던 자매 선교사들에게 내가 교회에 가입했으며 그들이 내 마음속에 회복된 복음의 씨앗을 심어 주었음을 전해야 한다고 느꼈다.

“선교사들과 토론을 해야 해요.”

남편의 말에 나는 이렇게 답했다.

“토론이라면 5년 전에 이미 한 걸요!”

나는 아이들과 함께 토론을 들었다. 우리가 침례를 받던 날은 우리 생애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되었다.

여러 해가 지난 후에 나는 나를 맨 처음에 가르쳤던 자매 선교사들에게 내가 교회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전해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나는 페이스북에서 브라질 산타마리아 선교부의 귀환 선교사 그룹을 찾았다. 그리고 거기서 나를 가르쳤던 자매 중 한 명의 이름을 발견했다. 나는 그녀에게 친구 요청을 하면서 내가 누구이고 어떻게 교회 회원이 되었는지를 이야기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이제 성전에서 인봉되었으며 아들은 전임 선교사로 봉사 중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나는 그녀에게 이 모든 일은 그녀와 그녀의 동반자가 회복된 복음의 씨앗을 내 마음속에 심어 주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

마르타 알가르브, 브라질 산타카타리나



나는 두 봉지 가득
음식을 챙겨 들고
와드의 한 자매님
댁으로 향했다.

축복을 불러온 축복

아 내 카르멘과 나의 첫 아이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는 우리 와드의 감독으로 부름받았다. 당시에 우리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래서 가족을 부양하는 동시에 와드 회원들을 보살피고 돌보는 일은 내게 상당한 부담이 되었다.

어느 일요일, 성찬식 중에 홀로 네 명의 어린 자녀를 키우는 한 어머니가 눈에 띄었다. 그녀는 예배당 맨 뒷좌석에 앉아 아이들을 조용히 시키려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 역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녀는 도움을 요청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몇 주가 지났고, 그녀는 아이들을 데리고 일요일마다 교회에 참석하고 있었다.

그러다 맞은 어느 월급날이었다. 상여금을 지급받는 축복이 우리에게 찾아왔다. 나는 여분으로 생긴 그 돈으로 우리 집에 꼭 필요한 수리를 하기 위해

자재를 사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상점으로 향하던 도중에 그 자매님과 자녀들이 떠올랐다. 나에게 생긴 여분의 돈을 그들을 위한 음식을 사는 데 써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해야 한다고 느낀 일을 설명했다. 아내도 내 계획에 동의해 주었다.

장을 보는 도중에 쿠키가 눈에 들어왔다. 아이들이 단 것을 좋아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두 봉지 가득 음식을 챙겨 들고 그 자매님 댁으로 향했다.

나는 나무로 된 낮은 현관문을 여러 번 두드렸다. 그냥 뒤돌아 나오려던 참에 마침내 문이 열렸다. 그 자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감독님을 여기서 뵙다니,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순간 엄마 뒤에 숨어 있던 아이들이 뛰어나왔다.

내가 말했다. “제가 먹을 것을 좀 가져왔어요.”

딸들 중 하나가 쿠키를 보더니 “우와,

쿠키다!” 하고 소리쳤다. 아이들은 모두 신이 나서 모여들었다. 일곱 살 난 여자아이는 나를 꼭 껴안으며 “고맙습니다, 감독님!” 하고 말했다.

언뜻 집 안을 보니 자매님은 바닥에 들통을 놓고 빨래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이 가족에게는 탁자도 없었고, 잠자리는 바닥에 놓인 매트리스가 전부였다. 그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절실한지 알 수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탁자와 개인 침대가 생기도록 조치를 취했다.

이 경험으로 나는 주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인도하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돕기 위해 꼭 특별한 부름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우리는 영에 민감하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파악하며, 기꺼이 주님의 손에 들린 도구가 되어야 한다. ■
로베르트 아툰카르 니에토

감사로 가득 찬 편지 두 장

아 버지는 평생을 낮은 자존감과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에 시달리셨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의 아들로서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말을 자주 들으며 자라셨다. 감사하게도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지는 않으셨지만, 나와 내 형제자매들에게 우리가 자랑스럽다고 말씀해 주시거나 우리가 잘한 일들에 대해 칭찬을 건네시는 법이 결코 없었다. 나는 자라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 드리려고 노력했지만 항상 역부족인 듯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그런 이유로 아버지와 우리는 사이가 그다지 좋지 않았다.

어느 해에 나는 현명하신 우리 감독님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감독님은 내가 아버지께 감사함을 느끼는 이유를 모두 적어서 편지를 드려 보라고 조언하셨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다. 나는 가슴 깊은 곳에 상처들을 안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감사 편지가 억울함을 토로하는 말들로 가득 차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러나 내가 기도를 했을 때, 영의 인도 아래 아버지께 대해 감사하는 이유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다 쓰고 보니, 두 장이 꽤곡히 채워졌다.

나는 아버지가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궁금해하며 편지를 드렸다. 하지만 어떤 반응을 보이시더라도 나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저 내 마음에 주의를 기울이고, 내가 그 편지를

썼던 이유를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의붓어머니가 전화를 하셨다. 어머니는 울고 있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그 편지를 몇 번이나 읽고 또 읽으셨다며 아버지가 지금은 전화를 못 받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통곡을 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정말 고맙다. 너희 아버지께 꼭 필요한 거였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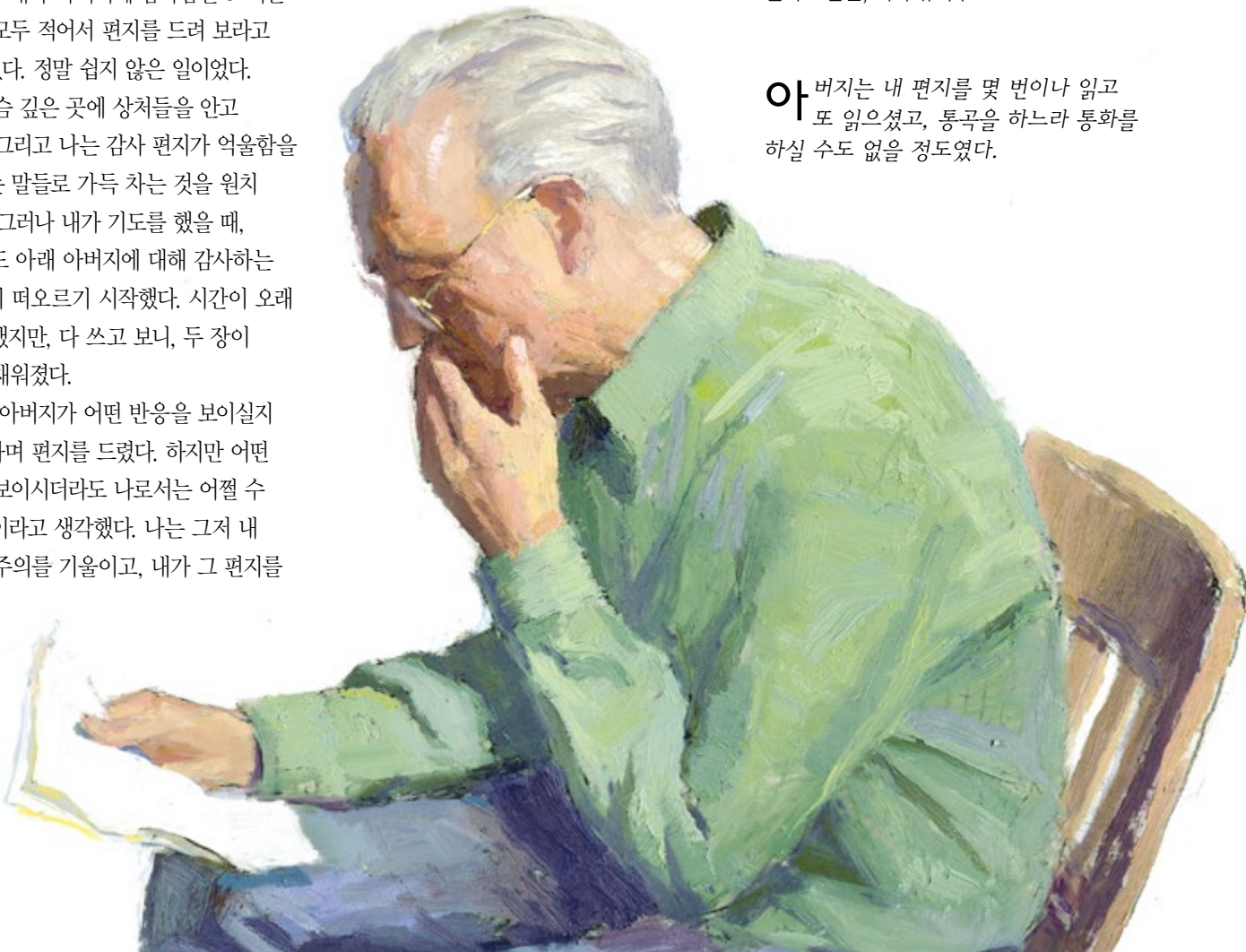
그날 늦게, 아버지는 내게 전화를 걸어 고맙다고 하셨다. 또 며칠간 매일 전화로 그 편지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말씀하셨다.

우리의 관계가 기적적으로 치유되었다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직은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이 많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내 마음은 치유되기 시작했고, 우리 관계에도 진전이 있었다. 마침내, 나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었다.

몇 년 후에 아버지는 암과 사투를 벌인 끝에 세상을 떠셨다. 나는 이제 아버지께서 구주의 도움을 통해 수 년간의 학대로부터 치유받고 커다란 기쁨을 누리고 계시리라 확신한다. 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권능을 통해 치유되었음을 안다.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 그분은 상처의 독과 영혼에 드리운 한을 거두도록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나는 감사와 용서, 사랑이야말로 강력한 치유법이라는 것을 안다. ■
엘리스 달렌, 미국 유타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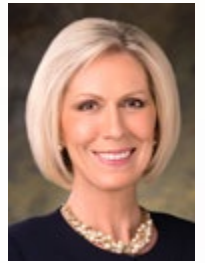
아 버지는 내 편지를 몇 번이나 읽고 또 읽으셨고, 통곡을 하느라 통화를 하실 수도 없을 정도였다.





외설물 문제를 다루는 법:

보호하고, 반응하고, 치유합시다



조이 디 존스 자매
본부 초등학교 회장

우리 자녀들이 외설물을 접하며 겪게 될 국면들에서 이 세 가지 방식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의 가장 어린 구성원들, 바로 우리의 자녀에게 미치는 외설물의 영향을 신물이 날 정도로 잘 알고 있습니다. 외설물은 광범위하게 퍼진 역병이며, 수치심과 기만, 왜곡된 감정, 자제력 상실, 심각한 중독을 야기하고, 시간과 생각, 에너지를 모조리 소모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모, 가족, 교사로서 우리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실제로 이해하고 소중히 여기며 보호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가장 큰 은사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가장 큰 두 계명입니다. 저는 외설물과 싸우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요즘 유행하는 말처럼 “외설물은 사랑을 죽입니다”만, 사랑이 외설물을 죽인다는 사실도 기억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그들의 중독이나 행동까지도 바꿀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은 우리가 특히 우리의 자녀와 관련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고 경청할 것인가에 대한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 만약 이 역병을 세상에서 뿌리 뽑고자 하는 어떤 소망이라도 있다면, 우리가 기울이는 모든 노력의 선두와 토대에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사랑을 실천하는 세 가지 방식을 제안하려 합니다. 우리가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받아들이며 행동에 옮기기를 희망합니다. 이 세 가지 실천 방법은 우리의 자녀가 외설물과 관련하여 겪게 될 수 있는 세 가지 국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자녀를 진정으로 보호함으로써 “나는 너를 사랑해”라고 말합니다. 둘째, 우리는 의도적으로든 아니든 자녀가 외설물에 노출되었을 때 우리가 반응하는 방식을 통해 “여전히 난 너를 사랑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외설물을 보는 것에 중독되거나 조절이 안 되었던 자녀가 치유되기 위해 노력할 때 사랑으로 그 아이를 지원해 줌으로써 “나는 언제나 너를 사랑할 거야”라고 말합니다. 각 단계마다, 사랑이 그 열쇠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의
아들딸들이 이
문제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문제를 충분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1 보호한다: “나는 너를 사랑해”

마음속에 사랑하는 자녀를 그려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아이에게 “나는 너를 사랑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그들을 보호하여 그들이 최고의 자아를 실현하며 삶의 도전에 맞설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다는 의미입니다. 보호의 한 가지 의미는 강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한결같은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관계는 자녀와 더 가까워지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녀, 손자 손녀, 또는 어떤 아이든 우리는 그들과 강한 신뢰 관계를 맺고 그들을 보호함으로써 그들이 의지할 만한 안전한 장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보호는 그들이 자신의 정체성 및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이 소중하게 여겨지고 사랑받는다고 느낄 때, 아이는 자신의 행복을 위한 지침을 주시는 자상한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속에 그리며 의지하게 됩니다.

제가 우려하는 점은 많은 부모가 아직 외설물의 위험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으며, 그것을 단지 옆집 아들의 문제 정도로 치부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의 아들딸들이 이 문제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문제를 충분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오래전에 저와 남편은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 우리는 그 이야기를 저희 자녀들에게 자주 되풀이해서 들려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늑은 방울뱀에 관한 것입니다. 그 방울뱀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석양을 보고 싶다며 지나가는 어린 소년에게 부탁하여 자신을 산꼭대기에 데려다 달라고 했습니다. 소년이 주저하자 방울뱀은 자기를 데려다주는 대가로 소년을 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에 응한 소년은 친절하게 뱀을 산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함께 석양을 보았습니다.

소년은 뱀을 데리고 다시 계곡 아래로 내려간 후 밤을 보내기 위해 자기가 먹을 음식과 잠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뱀은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꼬마야, 정말 나를 집으로 데려다주겠니?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으니, 집으로 돌아가고 싶구나.” 소년은 자신이 안전하며 뱀이 약속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부탁대로 뱀을 집까지 데려다주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뱀을 집어서 가슴에 바짝 붙여 안고는 뱀이 자기 집에서 죽을 수 있도록 사막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뱀을 막 내려놓으려 할 때, 방울뱀은 몸을 돌려 소년의 가슴을 물었습니다. 소년은 비명을 지르며 뱀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뱀 아저씨, 왜 이러셨어요? 저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어요!” 방울뱀은 소년을 쳐다보며 씩 웃었습니다. “나를 집어 들었을 때, 너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잖아.”

요즘 세상에서 저는 많은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뱀을 건네주는 광경을 봅니다. 바로 스마트폰 말입니다. 아직 어려서 충분한 가르침을 받지 못했고, 필요한 추론 능력과 의사 결정 능력이 아직 없으며, 보호해 줄 부모의 통제와 다른 보호 장치가 없는 어린아이의 손에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휴대폰을 들려 줘서는 안 됩니다. 브리검 영 대학교 가정생활학과의 제이슨 에스 캐롤 교수는 “자녀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그들을 보호해야만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뇌는 쾌락 중추가 있는 뇌간이 가장 먼저 발달합니다. 그 이후에야 추론과 의사 결정 능력을 담당하는 전두엽 피질이 완전히 발달합니다. “따라서 어린아이는 제동 장치 없이 가속 페달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전화기에는 보호 장치가 있어야 하며, 청소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인에게도 유익한 조건입니다. 독을 가진 뱀에게 물리면 아무도 그 독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일부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통화와 문자 메시지만 할 수 있는 폴더 전화기를 주기도 합니다.

스마트폰 외에도 인터넷을 켜서 원치 않는 미디어에 접속할 수 있는 기기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원치 않는 외설물 노출의 79%는 가정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태블릿, 스마트폰, 게임기, 휴대용 DVD플레이어, 스마트 TV를 통해 외설물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기기 중 몇 가지만 꼽은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몇몇 가정은 집에서 가족이 자주 지나다니는 공간을 한 군데 정해서 그곳에서만 전자 기기를 사용하게 합니다. 그런 가정들은 그곳을 “미디어 방”이라고 부르면서 모든 기기를 누구나 다 볼 수 있으며 환한 곳에 둡니다. 누구도 혼자 방에 들어가 전자 기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외에도 침실이나 화장실에서 전화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규칙을 정한 가정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저 간단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도 혼자서는 전화기를 쓰면 안 돼.” 그 외에 다른 분들은 환경 설정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자녀가 사용할 수 있는 앱에 대한 부모의 접근 권한을 점점 늘려 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그들은 신뢰를 쌓으며 전화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각 가족의 요구가 무엇이 되었든 간에, 모든 가족 구성원이 처음부터 전자 기기를 현명하고 긍정적으로 사용하도록, 그리하여 도덕적인 사고방식을 기를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자녀에게 선을 위해 전자 기기를 유익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교육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이 기능을 사용하는 게 선한 목적에 도움이 되는가?”라고 스스로 묻고 판단하도록 가르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가족을 어떻게 가르치느냐와 관련된 우리의 선택은 미래 세대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부모로서 자신과 자녀가 맺고 있는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기울이고 있는 자신의 노력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스러운 관계를 강화할 때,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외설물의 유해성을 경고하시는 이유를 더 잘 이해하고, 어떻게 그것을 피할 수 있는지 인식하며, 장차 그것에 혹 맞닥뜨리더라도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2 반응한다: “여전히 난 너를 사랑해”

자녀가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문제를 부모와 공유하는 우호적이며 수용적이고 개방적인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외설물 문제를 겪게 된다면, 또는 문제를 겪을 때, 우리는 자녀의 나이에 상관없이 솔직하게 그에 관해 이야기하자고 권유할 수 있습니다. 우연한 초기 노출이든, 빈번하게 이용하고 있든, 강박적인 상태로 가고 있든 상관 없습니다. 대화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자신이 사랑받고 있으며,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의 자녀들은 더 흔쾌히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가 먼저 자발적으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보통 그런 일은 관찰력이 있는 부모가 자녀에게 “무슨 일이 있니?” 하고 묻거나 “네가 평소와 다르구나”라고 물을 때 일어납니다. 사랑을 더 많이 느낄수록 자녀는 더 쉽게 마음의 문을 엽니다.

이러한 사랑에 대한 확신은 사소한 여러 경험이 자녀의 마음속에 반복해서 쌓이며 확립됩니다. 작은 문제들이 생겼을 때 애정 어린 대화로 건강한 대처 방식의 기초를 다져 놓으면, 큰 문제가 생겼을 때도 소통의 끈을 계속 이어 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음과 같이 말하리라는 것을 자녀가 아는 것입니다. “여전히 난 너를 사랑해.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어. 나는 언제나 너를 사랑한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우리는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그들이 직면할 가장 강한 충동이자 가장 큰 유혹 중 하나에 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꺼리다 보니 다른 아이들이나 청소년, 심지어 대중 매체가 그들을 주도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중 일부는 자녀의 순수함을 보호하기 위해 자녀 옆에서 **외설물**이라는 단어를 거론하는 것조차 주저합니다. 그것을 너무도 어색해합니다. 아마도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와 공개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대화가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면 어떨까요? 만약 아이들이 이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외설물에 대한 이야기를 금기시한다면, 어떻게 아이들이 그 주제로 우리와 대화해 주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 여러분, 자녀가 우리에게 오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대화를 시작해야만 합니다. 그런 대화를 일회성 행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자주 편안하게 나눌 것을 제안합니다. 마음을 담은 대화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대화의 전문가는 구글같은 인터넷 검색 서비스가 아니라 부모와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들입니다. 그러한 대화는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대화는 자녀와 여러분 사이의 신뢰를 키워 줍니다. 우리는 자녀가 두려워하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녀가 본인이 준비되었다고 느끼고 자신에게 권한이 있다고 느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녀와 함께 대화를 나누어야 하지 일방적인 말을 늘어놓아서는 안 됩니다.

부모와 교사로서 스스로를 교육시키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을 도울 수 없습니다. 무엇을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자신을 가르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공부한 뒤 자녀에게 외설물이 왜 나쁜지, 왜 그것이 그렇게 위험한지, 우리가 왜 외설물 때문에 자녀가 다치는 상황을 바라지 않는지, 그리고 외설물과 직면했을 때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의 나이에 맞게 충분히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그저 “그건 나쁘기 때문이야”라고 말하는 것은 설득력을 떨어뜨리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대신 우리는 가능한 한 많은 이유를 제시하여 청소년들이 도덕적인 표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로 인해 동기를 부여받도록

도와야 합니다.

외설물을 피해야 할 이유가 많습디만, 그중 몇 가지를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Fight the New Drug(신중 마약과의 싸움) 단체에서 이야기한 것으로, 우리 젊은이들에게 흥미롭게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 외설물은 우리의 뇌를 변화시키고 연결 구조를 바꿀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외설물은 심지어 우리의 뇌를 더 작게 만들고 활동을 둔화시킬 수 있다.
- 외설물은 사람을 중독시킬 수 있다.
- 외설물은 우리의 자존감을 파괴한다.
- 외설물은 우리를 외롭게 만들 수 있다.
- 외설물은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 외설물은 건강한 성생활을 파괴할 수 있다.
- 외설물은 폭력과 연결된다.
- 외설물은 결국 사람들을 부정직하게 만든다.
- 외설물은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는다.
- 외설물은 우울증, 불안, 수치심을 유발한다.

저는 여기에 외설물이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난다는 말도 덧붙이고 싶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여러 이유로 우리는 외설물에 반대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실천 없는 지식은 좌절감만 남길 뿐입니다. 우리는 합리적이고 유익한 경계와 한계, 기대치를 정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자기만의 내적 논리를 만들어 외설물을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돕는 것입니다. 만약 이 문제에 대해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 아이는 최근의 충격적인 통계 자료의 당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3 치유한다: “나는 언제나 너를 사랑할 거야”

아이들이 외설물에 노출되거나 그 뒷에 걸려 있을 때, 그들은 그에 대응하고 회복되고 치유되기 위해 인간힘을 씁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회복에 대한 책임을 지고 앞으로 나아가려 할 때, 진실되고 열렬하며 굳건하고 한결같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 누구도 부모만큼 이 일을 잘 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자녀들에게 신중하게 진리를 가르친 후, 부드럽게 신뢰를 쌓고 대화를 독려한 후, 자녀들이 실수와 잘못된 선택을 해도 우리가 여전히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언제나 사랑할 거야”라고 약속하고 있음을 자녀들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수년 전에 저희 가족에게 일어났던 단순한 사고가 생각납니다. 저와 남편은 외출해서 집에 없었고, 큰아이가 동생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소방차가 우리 집에 와 있다고 걱정하는 이웃의 전화를 받고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10살짜리 제 아들은 뒤뜰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는 25,000㎡에 달하는 들판이 이어졌으며, 들판에는 키가 크고 마른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제 아들은 자그마한 불꽃으로 불이 날 수 있는지 시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걸 실행에 옮겼죠! 저희가 도착했을 즈음에는 소방대원들이



더 많은 자료는
overcomingpornography.ChurchofJesusChrist.org
 에서 찾을 수 있다.

작은 불을 이미 진화한 상태였고, 소방관들은 저희 아들에게 일장 훈시를 하고 있었으며, 이웃 주민들은 흠어져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들은 당황하고 겁을 먹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 아이는 자신이 곤경에 빠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완전히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이 귀여운 아이를 두 팔로 안은 뒤 우리의 사랑을 전하고 다치지 않아 다행이라며 아이의 마음을 안심시키는 것뿐이었습니다.

외설물에 노출될 때, 특히 그 거미줄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의 자녀들도 당황하고 겁에 질려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던 것을 가져다가 빛 가운데로 드러내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창피스럽고 쉽게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회복되고 치유되는 과정 속에서 실패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한결같은 사랑이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점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부모들은 그들의 사랑이 언제나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만으로 전부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치유 과정에서 여러분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의 일부를 자녀에게 도움이 될 적절한 자원들을 찾는데 쏟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필요한 일을 이루어 내는 토대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밧에 걸려 있다면, 그 사람과 여러분을 도와줄 전문가를 찾아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과 여러분이 치유를 추구할 때,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모든 이를 하나로 묶으며 현재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능력 밖의 관계를 창조할 권능을 가지신 분께 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치유자이신 우리 구주는 구원하는 권능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에게 부모가 될 수 있고 그들에게 주님을 가리켜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지만, 그들의 구주는 오직 그분뿐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 주님은 어떤 면에서든 우리보다 훨씬 더 완벽하게 우리 자녀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린 2018년 유타주 외설물 반대 연합 대회 기조연설에서 발췌함.

주

1. 제이슨 에스 캐롤, 리사 앤 톰슨, 「자녀들이 외설물을 거부하도록 돕는 여덟 가지 전략」에서 인용, 『리아호나』, 2017년 8월호, 19쪽.

이번 호 이야기

44 데이트와 외설물

『리아호나』 및 가족 서비스 직원들

온라인 전용

**외설물 문제를 고백하는 사람에게
반응하는 방법을 나는 어떻게
배웠는가**

익명, 미국 유타주

**약혼자가 외설물을 본다는 걸 알게 된
후에 앞으로 나아가**

익명,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나는 외설물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분투했는데 왜 그는 그러려고 하지
않을까?**

익명, 과테말라

아래에서 이 기사들과 그 외의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본다.

- liahona.ChurchofJesusChrist.org
- (복음 자료실 앱의 “청년 성인” 섹션에 있는) **청년 성인 주간 메시지**
- facebook.com/liahona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특정 주제에 관한
기사를 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글이나 피드백을 liahona.ChurchofJesusChrist.org로
제출해 주십시오.

외설물의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 그리스도를 찾으라

청년 성인들을 위한 기사를 기획하며 우리는 많은 시간 동안 그들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고민해 보았다. 청년 성인들은 정말 많은 어려움에 휩싸여 있다. 이번 호를 기획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나눠 본 결과, 우리는 우리 자신과 친구들, 그리고 수많은 이에게 영향을 끼쳐 온 데이트와 외설물을 주제로 선택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이 섹션의 기획이 쉽지 않으리라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다. 외설물은 결국 많은 이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때로는 그들의 인생을 파탄으로 이끈다. 그래서 청년 독신 성인들이 보기에 외설물은 특이나 결혼 준비 면에서 그렇지 않아도 불투명한 미래를 더 짙은 안개 속으로 몰아넣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외설물의 영향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 청년 성인들의 이야기를 받기 시작한 이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이 우리의 기획을 인도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목격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행복하고 중독 없는 영원한 결혼에 대한 한줄기 희망 그 이상이었다. 그 이유가 궁금한가? 그것은 바로 모든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가 가져다주는 힘, 즉 삶을 변화시키고, 희망을 불어넣으며, 우리를 치유해 주는 권능에 대한 간증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만약 여러분의 관계가 외설물로 영향을 받고 있다면, 외설물에 대항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지극히 잘 아는 이들의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이 섹션의 기사들에서 만나 보기 바란다. 이러한 기사들에서 여러분은 데이트 중에 외설물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고 대화할 수 있을지를(44쪽), 외설물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털어놓는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온라인 전용), 또한 두 사람 모두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용서와 치유는 무엇이며(온라인 전용), 관계를 지속하는 방법을 알도록 어떻게 영이 인도해 줄 수 있을지(온라인 전용)를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여러분이 구주께 의지하고 자신의 삶에 영을 초대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독특한 상황에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는 것을 안다. 세상에 외설물의 어둠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 하더라도 구주께서 비춰 주시는 치유의 빛줄기는 그 어떤 어둠도 사라지게 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그분을 찾는 것이다.

진실한,

차켈 워들레이와 민디 셀루

교회 잡지 청년 성인 섹션 편집자

데이트 관계가 외설물의 영향을 받는 경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이야기한 엠 러셀 벨라드 회장의 조언을 이번 호 『리아호나』 온라인 기사에서 읽어 본다.



사진: GETTY IMAGES,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됨. 모델이 포즈를 취함



데이트와 외설물

「리아호나」 및 가족 서비스 직원들

청년 성인인
우리는
데이트가
기대감,
두려움,

성취감, 긴장감을 모두 동시에 맞볼 수 있는 일임을 알고 있다. 서로에 대해 마음을 열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 하기 마련인데, 관계를 형성하고 다지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꾸밈없이 자신을 터놓는 것이다. 우리가 꿈꾸는 것, 두려워하는 것, 믿는 것들은 무엇인가? 결혼과 가족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가? 과거에 경험한 적이 있거나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 중 서로에게 이야기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가?

외설물 문제에 관해 대화하기 (또는 물어보기)가 두려울 수 있는 만큼, 그것에 관한 대화를 하지 않으면 차후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외설물과 관련된 각 문제는

독특하면서도 까다로운 특성이 있다. 여러분은 그것이 문젯거리가 되는지, 또는 데이트 중인 사람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면 좋을지조차 모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영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상황에 다 적용되는 해결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이 기사에서는 아래와 같은 질문이 있는 이들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소개하고자 한다.

- 데이트하고 있는 사람에게 외설물이라는 주제를 어떻게 꺼낼 수 있을까? 또한 이에 대해 질문하고 이야기할 만한 적절한 시점은 언제인가?
- 외설물 때문에 문제를 겪은 이력이 있는 누군가와 관계를 진전시켜도 되는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 외설물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함께 노력할 수 있을까?

누군가와
데이트를 하는
관계에 있을 때
닥친 외설물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도움,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

편집자 주: '데이트'의 의미는 문화마다 다르다. 이 기사에서는 복음의 표준 안에서 누군가를 알아가기 위해, 또 잠재적으로 결혼에 이를 수 있는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사람을 만나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에 외설물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거나 현재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한 메시지

과거에 외설물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거나 현재 겪고 있다면, 데이트를 한다는 생각을 할 때 여러분은 절망감이나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서 외설물을 없애려는 진지한 소망이 있다면 (혹은 이미 없애 버렸다면) 여러분의 노력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통해 건강하고도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한다. 상대방과 계속 만나 보면서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본다.

1. 진정으로 그 이야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흔히 사람들은 이렇게 묻는다. “외설물 중독과 관련된 죄를 이미 회개했는데도 그 과거를 내가 데이트하고 있는 사람에게 굳이 이야기해야 하는가?” 혹은 “현재 겪고 있는 외설물 문제에 관해

데이트 상대에게 이야기해야 하는가?” 일반적으로, 여러분은 이 문제를 적절한 시점에 세심한 방법으로 데이트 상대방과 함께 **이야기해야 한다**. 그런 대화를 나눌 때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원리들을 염두에 둔다.

- 시점—둘 사이의 관계가 진지한 성격으로 진전되어 이런 대화가 자연스럽게 필요하게 되는 시점에 한다.
- 정직—두 사람의 관계는 신뢰와 정직에 기초해야 한다. 혹여나 데이트 중인 사람이 관계를 정리하는 쪽을 선택할지라도, 그 사람은 문제의 본질 및 그 문제를 다루는 것과 관련하여 여러분이 보이고 있는 진전 사항, 그리고 앞으로 똑같은 문제가 재발하는 경우에 대한 여러분의 대처 계획을 알아야 한다.
- 용서—데이트 상대에게 여러분의 외설물 문제에 대해 정직해야 한다고 해서 그에 관해 대화할 때 눈에 보일듯 생생한 묘사를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만일 여러분이 회개하여 용서받았다고 느낀다면, 그에 대해 더는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 주께서는 우리가 자기 죄를 회개하면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교리와 성약 58:42 참조) 그러므로 데이트 상대와 나누는 이런 대화는 어떤 “고백” 이라기보다는 신뢰를 쌓고 진척 중인 회복 계획을 공유하고 상대의 지지를 얻는 과정에 더 가깝다.
- 치유—여러분이 회개했다 하더라도 외설물을 장기간 또는 정도가 심하게 이용한 경우에는 오랜 기간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치유 과정은 힘들고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나 완벽한 치료와 실제적인 치유는 가능하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잠재적인 배우자를 포함한 사람들의 적절한 도움과 지원이 필요하다.

2. 나는 진지한 관계를 맺을 준비가 되었는가?



진지한 관계를 맺을 준비가 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데이트 상대에게 기꺼이 진솔한 모습을 보이고자 하는 마음에서 판가름난다. 만일 외설물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은 두려움 때문에 둘 사이의 관계가 불신으로 내몰리도록 내버려두든지, 아니면 신앙을 행사하여 함께 문제에 맞설 수 있다.

외설물과 관련된 여러분의 이력을 내보이기가 불편하고 두려울 수도 있지만, 그것을 피하면 오히려 두려움과 수치심만 더해질 수도 있다.



외설물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는 사람과 데이트 중인 이들을 위한 메시지

외설물에 최초로 노출되는 평균 연령이 11세라는 점과 외설물은 매우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18세 이전에 어떤 형태로든 외설물을 경험해 보았다고 할 수 있다. 이 사실은 데이트를 하는 상황에서 걱정스러운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외설물에 노출되었다고 해서 곧 그것에 중독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으며, 외설물에 빠져드는 정도도 다 다르다.(델린 에이치 옥스, 『외설물의 뒷에서 벗어나기』, 『리아호나』, 2015년 10월호, 50~55쪽 참조) 희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그것을 구하는 모든 이는 힘과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관계가 발전함에 따라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질문을

고려해 볼 수 있다.

1. 외설물에 관하여 언제 어떻게 물어보아야 하는가?

데이트 중인 사람에게 이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언제 어떻게 꺼낼지 결정할 때, 부모님이나 언니, 오빠, 교회 지도자, 혹은 좋은 조언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다른 사람과 상의해 볼 수 있다. 여러분이 적절하다고 느끼는 방법을 찾은 다음, 서로의 관계가 특별하거나 진지해지면 적절한 시점에 대화해 본다. 그렇다고 해서 첫 데이트마다 매번 과거를 추궁하며 시작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관계가 진전됨에 따라 여러분은 외설물에 관한 그들의 이력을 언제 어떻게 물어볼 것인지 알기 위해 영감을 구할 수 있다.

2.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여러분과 상대방이 마음을 진솔하게 나누기 시작할 때 아픔이 치유될 수 있다. 상대가 외설물 문제를 드러내면서 여러분이 갖게 되는 생각과 느낌을 알아 두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은 비판적이 되거나, 화가 나거나, 무감각해지거나, 속았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상대가 밝힌 사실이 둘 사이에 더 큰 신뢰와 연민, 사랑, 공감을 불러올 수도 있다.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대방과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고려한다.

데이트 상대를 잃는 것을 두려워하면, 해당 사실을 아예 부정하거나 일부를 숨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며, 이는 훗날 신뢰를 깨뜨리고 둘 사이의 관계에 손상을 가할 수도 있다. 반면, 여러분이 상대방의 선택의지를 존중한다면, 좋은 면과 나쁜 면을 두루 아는 상황에서 관계를 지속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여전히 결과와 관련하여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으나, 모든 정보를 공유해야만 삶에서 외설물을 몰아내고자 하는 여러분의 노력과 소망에 상대방도 도움의 손길을 건낼 수가 있다. 또한, 관계가 유지되든 중단되든 상관없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회복에 이르는 길을 계속 걸을 수 있다.



3.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는가?

데이트 상대가 외설물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걱정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상대방의 개인적인 어려움을 남들에게 이야기해서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품었던 신뢰를 저버리게 해서는 안 된다. 감독님이나 전문가, 또는 상대방의 허락을 받아 친구나 믿을 만한 지도자에게 조용히 털어놓는 방법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관계를 지속할지 중단할지 결정할 때에는 영의 인도를 지속적으로 구해야 한다. 그러나 아래 제언들 역시 도움이 될 수 있다.

- 외설물이 상대방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으며 어느 정도 치유가 진행되었는지 물어본다. 그들은 필요한 행동을 적절히 취함으로써 삶에서 외설물을 없애 버리고자 하는 소망을 보여야 한다.
- 일부 형태의 외설물 이용(예를 들어, 아동 외설물)은 당사자에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주요 지표이며 위험할 수도 있음을 인식한다.
- 구주의 속죄 권능이 실재한다는 점을 인식한다. 그것을 통해 여러분은 용서할 수 있고, 상대방도 치유될 수 있다.
- 서로의 관계에서 완전한 정직과 더불어 성전 결혼을 하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을 최우선시하겠다는 여러분의 결심을 확고히한다.



- 치유하고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이해한다. 문제는 재발할 수도 있으며, 회복하고자 노력하는 이들은 도움이 필요하다. 이는 그들의 계기(외설물에 눈을 돌리게 만드는 것들)를 이해하고 적절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도록 돕는 일을 포함한다.
- 두 사람이 결혼을 염두에 두는 관계로 발전하고 있는 경우, 외설물은 용납되지 않으며 결혼 후의 건전한 성관계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반드시 두 사람 모두 동의해야 한다.

앞으로 나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성신의 속삭임에 의지하는 것이다. 이는 외설물 사용을 중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해심을 지니고 관계를 지속하라는 속삭임부터, 관계는 끝내되 변화하려는 상대방의 노력을 계속 지원해 주라는 속삭임까지 다양할 수 있다.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상대방은 외설물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이 어떤 진전을 보이느냐에 따라 상황이 변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외설물을 극복하기 위해 협력하기

외설물을 극복하려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협력하면 두 사람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고 역경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서로 돕는 법을 배움으로써 서로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 외설물을 극복하기 위해 협력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 교회 웹 페이지인 addressingpornography.ChurchofJesusChrist.org에는 두 사람 모두가 이러한 치유 과정을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될 여러 자료가 나온다. (교회의 중독 회복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 포함)
- 여러분의 관계에서 외설물에만 중점을 두게 되는 일이 없도록 외설물에 대해 대화할 특정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에 대해 고려해 본다. 대화할 때 비하하거나 생색내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 여러분 사이에서는 두 사람 모두 심문받는대거나 품위가 손상되는 게 아니라 사랑과 지지를 받는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
- 영적인 습관을 실천하면 유혹에 맞서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구주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여러분 사이의 관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더 큰 소망을 품으며 의미 있는 경전 공부와 (가능한 경우) 성전 예배, 안식일 준수, 타인을 위한 봉사, 지속적인 금식, 그리고 진지한 기도를 포함한 규칙적인 영적 습관을 유지하고 강화하도록 서로 격려한다. 그러한 관계는 여러분의 삶 전반에 걸쳐 외설물의 영향력이 감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제자의 길이란 평생 동안 노력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힘은 외설물뿐만 아니라 살면서 맞닥뜨리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만일 여러분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면, 성 중독 분야에서 숙련된 정신 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외설물 문제를 치료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더 많은 것을 이해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 우리 주변에는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부적절한 매체가 널려 있다는 점을 기억한다. 만약 데이트 상대자가 외설물 문제를 다시 겪게 된다면, 얼마나 빨리 그 문제에서 돌아서느냐가 그들의 삶에서 외설물을 없애고자 하는 그들의 결심을 나타내는 좋은 지표가 된다. 그러나 당사자보다도 여러분이 변화가 나타나기를 더 많이 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한다면, 데이트를 지속해야 할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보아야 한다.
- 여러분이 데이트 상대에게 매우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들의 행위를 변화시키는 주요한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변화하겠다는 그들의 소망은 여러분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야 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인도를 구하고 구주가 있기에 언제나 희망이 존재한다는 점을 기억한다. 그분의 은혜는 우리를 치유하고 변화시키기에 충분하다. 그분의 속죄는 여러분 모두에게 효력을 미쳐서 힘을 북돋아 주고 상대방을 용서하도록 돕는다. 그러나 외설물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구주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구해야 한다. 그 누구도 이 일을 대신 해 줄 수 없다.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한다. 그분은 여러분만의 그 개인적인 상황에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



칠레에서는 휴대폰이 비쌉니다.

그래서 2016년에 저는 휴대폰을 살 돈을 직접 벌어서 보자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저는 일 년 내내 사탕과 알파호레스[alfajores]*를 도매가로 사서 학교 친구들에게 팔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은 돈은 다 저금을 했습니다. 점심을 사 먹거나 영화표를 사는데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 휴대폰을 사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았고, 저는 그것을 저 혼자 힘으로 산 것이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아빠는 그런 저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아빠는 “카를, 계속 열심히 해 보거라.”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대가 없는 무언가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이지요. 목표를 이루려면 노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 얼마나 공들였는지를 생각하면, 그것들을 더 가치 있게 여기게 됩니다.

저는 제가 성취하려는 것이 무엇이고 목표 지점이 어디인지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만약 성전에서 결혼하고 싶다면, 저는 교회 모임과 세미나리, 그리고 이후에는 종교 교육원과 청년 독신 성인 활동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합당한 청년들과 데이트도 해야 하고요. 목표를 달성하려면 나중에 더 나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 지금 무언가를 희생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카를, 15세, 칠레

* 남아메리카의 전통 쿠키.





청소년

이번 호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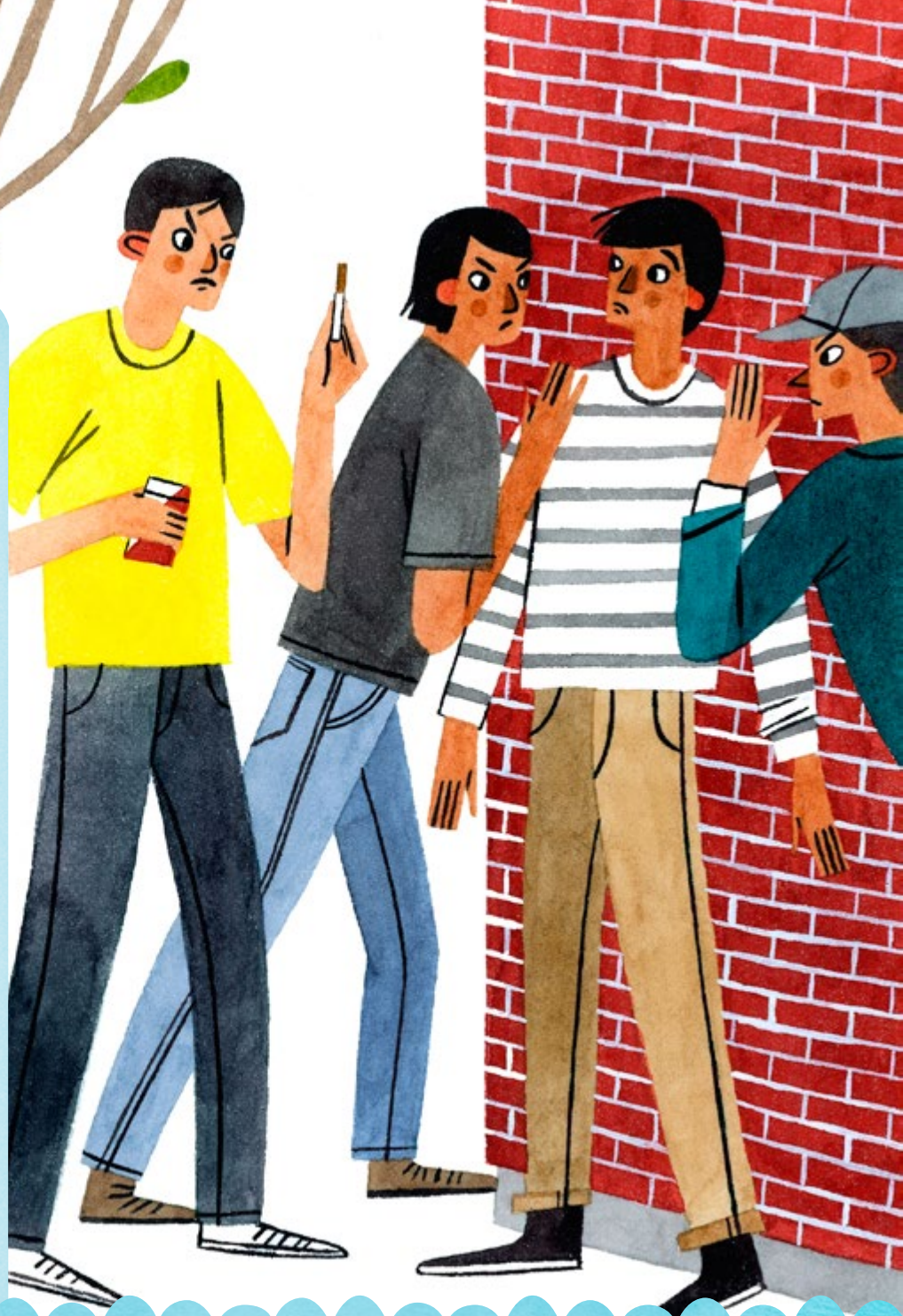


- 52 나를 괴롭히던 친구들이
침례를 받기까지
휴고 몬토야 장로
- 54 신성한 운명을 가진 아이,
데스티니
에머 시
- 56 내게 빛을 나눠 준 친구들
마리아나 엠 라라
- 58 진리를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음
마이클 알 모리스
- 62 질의응답
- 64 교회 지도자들의 답변: 우리
신앙의 중심 모퉁잇돌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열 일곱 살 때, 저는 고등학교
또래 친구들에게서 극심한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제 친구들은 저와 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농구나 축구
같은 건전한 활동에는 친구들과 함께
참여했지만 친구들은 술을 마시고
담배도 피웠습니다. 저는 그 두 가지
일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학교 밖에서
그날 오후에 치를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장 친한 두
친구인 후안과 프란시스코와(가명)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다 누군가가
담배와 라이터를 꺼냈습니다. 저는
친구들이 공부를 하다 지루해져서 제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깜빡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이 저를
보며 "이제 휴고가 담배 피우는 법을
배울 차례야."라고 말할 때, 저는 제
생각이 틀렸음을 알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반응하기도 전에,
후안과 프란시스코는 재빨리 다가와
제 양팔을 하나씩 붙잡았습니다.
친구들이 제 팔을 세게 붙잡고 있는
동안 누군가가 제 입술 사이로 담배를



나를 괴롭히던 친구들이 침례를 받기까지



휴고 몬토야 장로
칠십인 정원회

밀어넣었습니다. 제 몸은 이를 즉시 거부했습니다. 저는 담배를 저 멀리 바닥으로 뱉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돌덩이 같은 주먹이 날아와 제 광대뼈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위협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담배에 다시 불을 붙일 건데, 이번에는 담배 피우는 법을 제대로 배워야 할 거야. 바닥에 던지기만 해 봐. 그러면 본때를 보여 줄 테니까.”

그 순간, 저는 큰일났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어떻게든 도와 주시도록 재빨리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끝내자마자 우리 선생님의 자동차가 나타났고, 선생님은 우리가 있던 곳 근처에 주차를 했습니다. 그분은 차 밖으로 나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친구들은 저를 놔주었습니다. 친구들은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라고 말하며 선생님을 안심시켰습니다. 우리는 학교로 돌아가 시험을 치렀고, 상황은 끝이 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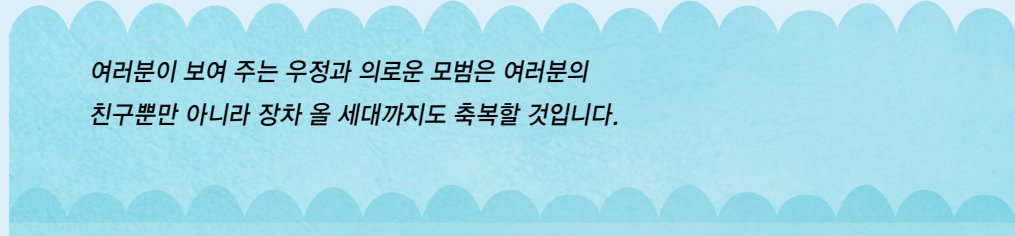
제가 겪은 일은 정말 힘든 경험이었지만, 저는 친구들이 한 행동을 용서했습니다. 저는 친구들이 저의 표준을, 그리고 지혜의 말씀에 따라 생활하겠다는 제 결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어떠한 나쁜 감정도 품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뒤, 저는 선교 사업을 나갔으나 계속해서 후안과 프란시스코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친구들에게 자주 편지를 써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제 간증을 전했고, 회개하고 교회에 참석하라고 권유했습니다. 놀랍게도, 그중 한 명은 정말로 교회에 갔습니다.

그때까지 친구들을 안식일 모임에 자주 초대했지만, 초대를 받아들인 사람은 후안이 처음이었습니다. 비록 저는 후안과 함께 있을 수는 없었지만, 저의 형제들과 아버지께서 후안을 도우며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후안을 따뜻하게 맞아 주었고, 후안은 교회에서 아주 편안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후안은 조금씩 작은 변화를 보이더니 결국은

어린 관심을 보이십시오.”¹

제가 후안과 프란시스코에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제가 아는 친구 중 가장 훌륭한 두 친구를 얻었으며, 이제 우리는 교회 회원으로서 하나님의 왕국을 돕기 위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극한의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더라도 언제나 교회의 표준을



여러분이 보여 주는 우정과 의로운 모범은 여러분의 친구뿐만 아니라 장차 올 세대까지도 축복할 것입니다.

침례를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신이 났는데, 후안이 제 편지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해 줬을 때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저는 선교 사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뒤 프란시스코와도 가깝게 지냈으며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는 프란시스코와 그의 아내도 침례를 받았습니다. 후안과 프란시스코는 지금도 저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입니다.

이 일련의 사건들은 제 삶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의롭게 생활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소책자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려면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웃는 얼굴로 대하고 그들을 아끼는 여러분의 마음이 전해지도록 진심

지키십시오.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다른 사람과 친구가 되기 위해 여러분의 표준을 낮추지는 마십시오. 친구들이 그릇된 행동을 하도록 설득하려 한다면 혼자서라도 의로운 편에서십시오.”²

여러분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계명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강한 모습을 보이십시오. 여러분의 모범은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이 곤경에 처한 순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모범이 되십시오. 제가 겪었던 상황과 같은 몇몇 경우에 여러분의 우정이야말로 바로 친구들이 복음을 배우고 회개하고 마음을 돌리도록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주

1.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2011), 16쪽.
2.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16쪽.

신성한 운명을 가진 아이, 데스티니

내 친구는 평소에는 항상 행복해했다.
과연 무엇이 그녀를 힘들게 하는 것일까?

에머 시

나 나는 프랑스 출신이지만 여동생과 함께 미국 동부에서 1년간 교환 학생으로 지낸 적이 있다. 그 시절에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데스티니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아이였다.[Destiny, 데스티니는 한국어로 '운명'을 뜻함—옮긴이] 데스티니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이 되었다. 우리는 학교에서든 방과 후에는, 또 내 동생과 함께 있을 때든 별의별 것을 다 같이 했다. 데스티니는 항상 행복한 모습이었다. 나는 데스티니의 그런 점을 제일 좋아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데스티니가 전에 본 적 없는 심각한 얼굴로 걱정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내가 무슨 일이라고 묻자 데스티니는 말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그때, 데스티니의 손에 들린 쪽지가 보였다. 나는 그것을 펼쳐서 읽어 보았다.

그건 누군가가 데스티니에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상스러운 말들을 적어 놓은 쪽지였다. 그 익명의 쪽지에는 데스티니가 못생겼고, 아무도 데스티니를 좋아하지 않으며, 데스티니는 살아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으니 자살을 해야 한다고 적혀 있었다. 나는 데스티니 같은 사람이 그런 공격을 받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데스티니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알게 된 후 나는 깊은 충격에 빠졌다.

그때부터 나는 데스티니의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 더욱더 노력했다. 단순히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곁에서 지지해 주고, 특히 진실한 친구가 되려고 노력했다. 나는 데스티니에게 너는 하나님의 딸이고, 신성한 성품으로 축복받았으며, 존경받을 만한 사람인데다 위대한 일을 행할 능력 또한 있다고 말해 주었다.

남들이 자신을 함부로 대하고 비판할 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나는 데스티니의 친구가 되어 주면서, 때로는 사람들을 돕는 최선의 방법은 그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알도록 도와주는 것임을 배웠다.

연말에 프랑스로 돌아가기 전에 데스티니는 내가 영원토록 소중하게 간직할 말을 들려주었다. 데스티니는 이렇게 말했다. “에머, 네가 날 살렸어. 네가 미국으로 오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나 죽고 싶었거든. 그런데 그때 너와 네 동생이 나를 엄청 도와줬어. 그저 신경 써 주는 것만으로 말이야. 나는 이제 나 자신을 사랑해. 그리고 너를 사랑해.”

학교에는 괴롭힘을 견디고 있거나 학대를 당하거나 따돌림을 당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을 방법을 찾아보라. 그들과 이야기하고, 그들을 생각하고, 친절하게 대하자. 그것이 바로 구주께서 하셨을 행동이며, 때로는 단순한 인사나 웃음이 모든 것을 바꿀 수도 있는 법이다. ■



마리아나 엠 라라

나는 모두가 서로를 잘 아는 멕시코의 한 작은 마을에서 엄마와 살고 있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고 있으면서도 나는 혼란스러웠고, 그 동네의 청년 중 유일한 활동 회원이었다. 나는 친구들 사이에 끼고 싶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당연해 보였던 한 가지 행동을 하게 되었는데, 그건 바로 남자친구를 사귀는 것이었다. 사실 이것은 내가 이후에 저지르게 될 많은 실수 중 하나일 뿐이었다. 나는 점차 또래들의 압력에 순응하고, 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나이를 먹었다고 믿기 시작한 나머지 복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어둠 속에 사는 저활동 청년이 되었다.

나는 그 어둠 속에서 일 년을 살았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내 삶은 더 어두워져 갔다. 내가 저지른 어리석은 결정 때문에

부모님과도 자주 싸웠고, 결국 더는 부모님과 함께 살 수 없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친했던 후기 성도 친구가 세상을 떠나자 내가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는 깨달음이 찾아왔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나는 하나님과 복음을 탕했다. 순종할 때 축복이 온다는 말을 더는 믿지 않기로 했다. 나는 내가 복음에 따라 생활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면 계속해서 교회와의 관계를 무시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어두운 방의 침대 위에 앉아 울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 있었다. 나는 곁에 이야기

나눌 사람도 없이 이렇게 혼자 있다는, 내가 저질렀던 잘못들을 바로잡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리고 아무도, 특히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지 않으실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나는 결국 교회 회원이 아니신 조부모님을 따라 미국 미네소타주로 이사를 갔다. 그곳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는 여정은 새아빠가 나와 동행해 주셨다. 그곳에서 첫 번째로 맞은 일요일에 우리는 교회로

내게 빛을 나눠준 친구들

갔는데, 정말이지 딱 성찬식만 참석할 생각이었다. 모임이 거의 끝나 갈 즈음, 나는 집으로 돌아가기로 이미 마음을 굳히고 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차로 걸어가는데 감독님이 우리와 이야기를 나누려 달려오시는 모습이 보였다. 감독님은 우리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셨으며, 다음 주 일요일에도 또 오라고 말씀해 주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했다.

다음 주 일요일, 성찬식이 끝나자 내가 자리에서 일어서기도 전에 와드의 청년들이 내 주위를 에워쌌다. 그리고 그 청년들은 삶을 변화시키도록 나를 도와주었다.


그렇게 나는 갑자기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들어서게 되었다. 나를 신경 써 주시는 감독님과 청년 회장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매일 복음대로 생활하려 노력하며 높은 표준을 지키고 의로운 것을 옹호하는 청년들이 있는 세상으로 말이다. 그들의 빛은 아주 밝아서 내 앞에 놓인 길까지도 밝혀 줄 수 있었다.

그때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 그것은 바로 "이같이 [나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다.(마태복음 5:16) 나는 매주 교회와 상호 향상 모임에 나가고, 매일 몰몬경을 읽고 기도하며, 단정한

옷을 입고, 더 나은 언어를 사용하고, 성전에 가고, 축복문을 받도록 자신을 준비함으로써 내가 해야 할 일을 해 나가기 시작했다.

나는 완전히 달라졌는데, 나는 그것을 청년 캠프에서 성신을 느끼고 내게 간증이 있음을 발견한 후에야 깨달았다. 나에게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며 내가 혼자이길 바라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 간증이 있었던 것이다. 간증은 아주 밝고 강력해서 나를 변화시켜 주었다. 우리가 전하는 간증은 나의 길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길까지도 밝혀 준다. 간증은 어둠 속에서도 용감하게 빛을 발한다. ■

글쓴이는 멕시코 바하 캘리포니아에 산다.



나는 두려움과 외로움에
휩싸여 있었다. 그러던
중 다른 나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아주 오랜만에 처음으로
교회에 가게 되었다.

진리를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안음

복음에 대한 간증과 그 축복으로 무장한 파비안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고 용감한 회원 선교사가 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마이클 알 모리스
교회 잡지



안 토파가스타가 내려다보이는 모래 언덕 위의 동네 라스 토마스에 해가 지고 있다. 그 아래로, 칠레 북부 항구 도시의 하루가 저물며 불빛이 하나둘 밝혀지기 시작한다.

오늘은 토요일 밤으로, 13살인 파비안 에이치는 친구들과 놀러 나갈 수도 있었다. 하지만 교회의 새로운 회원인 파비안은 그렇게 하는 대신 전임 선교사들과 저녁 시간을 보내는 편을 선택한다. 이제 “이스라엘의 집합을 [도움]” 시간이다.¹

파비안은 켈렌 반네터와 조던 쉘턴이 칠레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며 함께 일했던 모든 헌신적인 회원 선교사 중에서도 단연 돋보인다.

켈렌은 말한다. “파비안은 시간이 나면 우리와 함께 선교 사업을 했어요. 여름 방학이 끝나면, 다시 학교를 가야 해서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나갈 시간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슬퍼했죠.”

켈렌의 동반자로서 몇 개월을 함께 봉사한 조던은 이렇게 덧붙인다. “저희가 안토파가스타에서 함께 봉사하는 동안 파비안이 아마 일주일에 네다섯 번은 함께 나갔을 거예요. 그것도 매주마다요.

파비안은 우리가 함께 일했던 회원 선교사 중에서도 최고였어요.”

반 친구들의 놀림과 낮선 사람들이 주는 모욕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이 이토록 간절하게 선교 사업을 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파비안의 경우, 그 답은 파비안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 누리게 된 축복에서 찾을 수 있다. 파비안은 그런 축복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어 한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쁨”

선교사들이 그의 집 문을 두드린 후, 파비안은 곧바로 선교사 토론을 시작했다. 파비안은 처음 참석했던 성찬식 모임을 아직도 기억한다.

“예배당에 들어섰을 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조금 긴장되었어요. 하지만 뭔가 아주 놀라운 것도 느꼈어요. 마치 제가 이 교회를 몇 달, 혹은 몇 년은 다녔던 것만 같은 기분이 느껴졌죠.”

그로부터 몇 주 뒤에 열린 자신의 침례식에서 파비안은 이렇게 말했다. “물 속에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순간,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어요.



“그는 항상 자신이 한 개인적인 경험을 나눠요. 예를 들어 교회에 처음 갔을 때 느꼈던

마치 제가 새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저는 제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최선을 다해 그분의 계명을 지키리라는 것을 알았어요.”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해 온 파비안의 부모 레오나르도와 안헬라는 아들의 선교사 토론에 참석하면서 성전 결혼과 영원한 가족에 대해 배웠다. 파비안은 말한다. “몇 주 뒤에 아버지는 결혼 날짜를 잡으셨어요. 엄마가 아주 행복해하셨어요.”

파비안이 개종하고 넉 달 뒤, 안헬라는 아들을 따라 침례의 물가로 들어갔다. 파비안은 “그건 정말 아름다운 축복” 이었다고 말한다.

곧이어 다른 축복들도 뒤따랐다. 어릴 때 침례를 받았던 레오나르도는 교회로 돌아와 다시 활동적으로 지내게 되었다. 복음 공부는 그들 가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었고, 가족들은 서로 더 가까워졌다. 레오나르도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았으며, 파비안은 아론 신권을 받았다.

파비안은 말한다. “제게 신권이 있다는 게 좋아요. 와드 회원들에게 성찬을 전달하고 그분들이 자신의 성약을 새롭게 하도록 도울 수 있으니까요. 저를 가르쳐 준 장로님들과 우리 가족에게 성찬을

전달할 때면 특히 마음이 행복해져요.

성찬을 전달하는 제 모습을 보며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때 정말 기분이 날아갈 듯 좋아요.”

“그러면 참 좋겠어요”

파비안의 회원 선교 사업은 그가 침례를 받기 전부터 이미 시작되었다.

파비안은 말한다. “저는 친구 세 명에게 제가 침례를 받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중 두 명이 침례식을 보러 왔죠. 친구들이 제가 무엇을 믿고 교회에서 무엇을 하는지 이해하도록, 또 그렇게 해서 친구들이 복음을 배우고 침례를 받아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음을 나누는 게 좋아요. 친구들 중 한 명이라도 침례를 받고 우리 정원회에 들어오면 정말 기쁠 거예요. 그러면 참 좋겠어요.”

파비안은 학교에도 물문경을 가지고 가고, 친구들에게 나눠 주기 위해 선교사 책자도 챙겨 갖고 다닌다. 그는 교회에 관한 질문에 기쁘게 답하며 친구들을 일요일 모임과 청소년 상호 항상 모임에 초대한다. 파비안은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선교사들이 가르쳐 준 대로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해

배우고 침례 받을 준비를 하라고 권유한다.

켈렌은 말한다. “파비안은 사람들이 간증을 나누는 자신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파비안은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그 아이는 영적인 것들이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조던은 파비안이 자신의 개종과 복음에 대한 사랑, 그리고 자신이 받은 축복에 힘입어 권능으로써 간증을 전한다고 이야기한다.

“파비안은 가족이 받은 축복을 보았어요. 바로 그 점이 그렇게 공감하고 단도직입적으로 친구들에게 복음을 나누도록 파비안에게 동기 부여를 해 주는 거예요. 한번은 파비안이 한 구도자에게 간증을 전하면서, 자신의 부모님이 결혼하게 된 것은 아주 큰 축복이었지만, 자신이 침례받은 후에 어머니가 침례를 받기까지 기다렸던 4개월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파비안은 감격에 겨워 눈물까지 흘렸죠. 그런 뒤 파비안은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실 것이라고 간증했어요.”

켈렌은 파비안이 이토록 강한 회원



모범이 될 기회를 마련해 주죠.”

파비안이 가장 바라는 목표 중 하나가 고등학교 졸업 후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임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파비안은 말한다. “저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자신의 죄를 씻어 내라고

권유하고, 어떻게 하면 영원한 가족을 이룰 수 있는지 가르치고 싶어요. 저는 사람들에게 지금 당장 행복해지도록, 그리고 내세에서도 끝없는 행복의 상태에 거하라고 권유하고 싶어요.” ■

주
1. 러셀 엠 벨슨, “이스라엘 시온 군대”(전 세계 청소년 영적 모임, 2018년 6월 3일), HopeofIsrael.ChurchofJesusChrist.org 참조.

감정과 물몬경을 읽을 때 드는 느낌 같은 것 말이지요.”

선교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파비안이 가진 간증 덕분이었다고 말한다.

“파비안은 절대 ‘교회에서 누가 이렇게 말하는 걸 들어’라는 말은 하지 않아요. 파비안은 항상 **자신이 한**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하죠. 예를 들어 교회에 처음 갔을 때 느꼈던 감정과 물몬경을 읽을 때 드는 느낌 같은 것 말이지요. 파비안의 이야기는 모두 아주 진실해요.”

“언제나 기분이 더 나아져요”

파비안은 복음을 나누면서 또 다른 축복을 받게 되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가끔 학교에서 안 좋은 일도 일어나지만, 그럴 때면 선교사님들이 우리 집 문을 두드리고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을 도와줄 수 있겠냐고 물어보세요. 그렇게 선교사님들과 함께 일하고 나면 제 모든 문제가 사라진 듯 느껴져요. 선교사님들을 따라 나가서 함께 경전을 읽고 복음 전파를 도우면 언제나 기분이 더 나아져요. 복음을 나누고 제가 개종한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제 간증은 더 강해졌어요. 복음을 가르치는 일은 제가 저의 여동생을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파비안이 켈렌 반너터 장로(위, 중앙)와 조던 웰턴 장로(위, 오른쪽)와 저녁 전도를 하기 위해 준비한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특별한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은 지구 역사상 가장 중대한 시기에 이스라엘의 집합을 돕도록 이 땅에 보내졌습니다. 지금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결과를 가져오는 일도 **없습니다**. 단언컨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집합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녀야 합니다. **이 사명** 때문에 여러분이 지상에 보내진 것입니다.”

러셀 엠 벨슨 회장,
“이스라엘 시온 군대”(전 세계 청소년 영적 모임, 2018년 6월 3일),
HopeofIsrael.
ChurchofJesusChrist.org.

훌륭한 표준을 따르는 친구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친구들이 보여 주는 그리스도와 같은 동정심은 우리의 삶에 깊은 영향과 변화를 안겨 줍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자주 ‘선행을 하는 자 통해 하늘의 축복’을 받게 된다고 하신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조셉 비 워스런(1917~2008) 장로, 1997년 10월 연차 대회.



열쇠는 친절입니다

친구들에게 사랑을 보이고 친절하게 대하세요. 친구들을 진심으로 염려하고

그들의 행복을 바란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만약 그 친구들이 여러분을 신경 쓰지 않거나 친절하지 않다면, 그 관계는 지속하지 않는 편이 좋을 거예요.

매디 비, 15세, 미국 애리조나주



복음을 나누세요

선교사와 함께 복음을 가르치면 좋은 표준을 따르는 새로운 친구들을

찾을 수 있어요. 선교사는 교회 친구가 필요한 청소년들을 꽤 많이 알고 있죠.

쿠인타닐라 장로, 20세, 바베이도스 브리지타운 선교부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저는 제 친구들이 저의 표준을 높여 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키우도록 도와줄 수 있는 적합한 친구들인지 알기 위해 많이 기도해요.

이마늘 엠, 18세, 멕시코 치와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저는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사람들을 찾을 때 큰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의 소망을 아시고, 여러분이 자신의 몫을 다할 때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예요.

올리비아 티, 18세, 미국 유타주

자신의 표준에 따라 생활하세요

표준에 따라 생활하는 본보기가 되세요. 여러분과 다른 표준을 따르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 주세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그분의 길을 따르라고 가르치셨어요.

버나드 비, 19세, 필리핀 팔라완

제시된 의견은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일 뿐, 교회의 공식 교리를 밝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질문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과 고화질 사진(원할 경우)을 2019년 11월 15일까지 liahona.ChurchofJesusChrist.org로 제출해 주십시오. (“기사나 피드백 제출”을 클릭하세요.)

명확하게 표현하거나 분량을 조절하기 위해 보내 주신 의견을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교회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환경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되는 단어는 **청지기 직분**이다. 그것은 인간이 지구를 소유하고, 그것을 원하는 대로 아무렇게나 이용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지구의 자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의미이다.(교리와 성약 104:13~15참조) 비록 “거기에는 충분하여 남는 것이 있”으나(교리와 성약 104:17),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구의 자원을 현명하게 사용하기를 바라신다.(교리와 성약 59:20 참조)

하나님은 지구를 창조하셨으며 그분이 지으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다고 선언하셨다.(창세기 1:1, 31 참조) 이 지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로서 그분의 자녀들이 거하도록 창조되었다. 지구는 성결하게 되어 해의 영광을 받을 것이다.(교리와 성약 88:18~19 참조)

하나님은 지구를 유용할 뿐만 아니라 아름답게 창조하셨다. 땅에서 나는 것들은 “사람에게 유익하도록, 또 사람이 사용하도록 만들어져서 눈을 기쁘게 하며 마음을 즐겁게” 하는 데다 “영혼을 활기 있게 한다.”(교리와 성약 59:18~19)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을 아끼고 그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계속 아름답게 가꾸도록 노력함으로써 하나님을 영예롭게 해야 한다. 우리는 자원을 보존하고, 자연을 보호하며, 공해와 낭비를 지양해야 한다.

우리 신앙의 중심 모퉁잇돌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
제15대 교회 회장

새로운 성전에서 우리는 고대의 전통과 일치하는 정초식을 합니다. 콘크리트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기 전에는 큰 돌들을 놓아 건물의 기초 벽을 쌓았습니다. 그 일은 먼저 구덩이를 파고 기반이 되는 돌들을 놓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어서 시작 지점에서부터 한 개의 모퉁잇돌 쪽으로 기초 벽을 쌓고, 그다음으로는 그 모퉁이를 돌아 다음 돌이 놓인 모퉁이까지 그 벽이 연결되며, 그곳에서 다시 다음 모퉁이로 연결되어 그 벽이 처음 시작된 곳까지 다다르게 합니다. ... 마지막 돌은 중심 모퉁잇돌이라 부르는데, 그 돌을 놓게 되면 훨씬 더 경사스런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이 중심 모퉁잇돌이 놓인 후에야 비로소 건물을 세울 기초가 준비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비유로 사용하여 참된 교회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중심] 모퉁잇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에베소서 2:19~21)

이 위대한 후기의 교회는 주님께서 “서로 연결”하신 기본적인 모퉁잇돌들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 모퉁잇돌들은 이 사업에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중요한 기초가 되며, 설 수 있는 닻이 됩니다. ... [하지만] 저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식하고 존경하는 그분이 그 중심 모퉁잇돌이 되심을 말씀드립니다. ...

그분은 자신의 이름을 따른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중심 되는 모퉁잇돌이십니다. 인간은 그 외 다른 어느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4:12 참조) 그분은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5:9 참조) 그분에게 필적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생명을 바치신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어, 우리의 신앙과 그분의 교회에 확고하고 중심이 되는 모퉁잇돌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

1984년 10월 연차 대회 말씀에서 발췌함.

교회의 네 가지 모퉁잇돌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신앙의 중심 모퉁잇돌이 되신다고 간증했다.

또한 힝클리 회장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서 있는 다른 기본적인 모퉁잇돌에 관해서도 가르쳤다.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자
구주이시다.
우리의 신앙과
교회가 세워진
중심 모퉁잇돌이
되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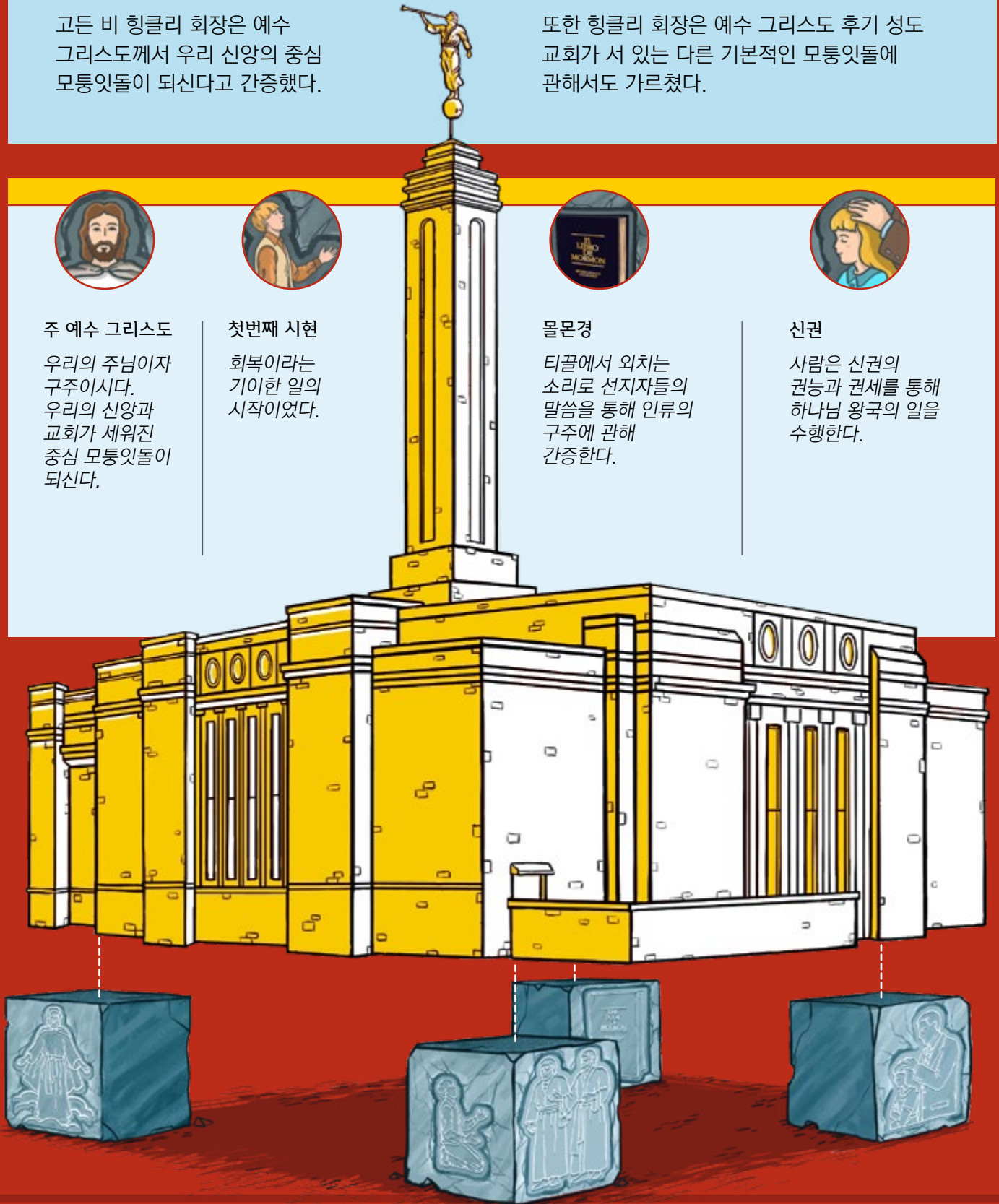
첫번째 시현
회복이라는
기이한 일의
시작이었다.



몰몬경
티끌에서 외치는
소리로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 인류의
구주에 관해
간증한다.



신권
사람은 신권의
권능과 권세를 통해
하나님 왕국의 일을
수행한다.



청년 성인

여러분의 배우자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 외설물 문제를
겪고 있는가?

여러분은 아직 희망이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여러분이 신앙으로
전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42



청소년
좋은 친구가 미치는 영향력

52~57,
62

와서 나를 따라라
에베소서 2장: 교회의
모퉁잇돌이란
무엇인가?

64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



KOREAN

친구들



안녕하세요? 여기는
콩고민주공화국
이에요!

친4~7쪽에서 만나 보세요.



달린 에이치 옥스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한복음 15:12)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평화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와 믿음이 다른 사람들과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자신과 다른 점이 있는 사람들을 친절히 대하십시오.
- 그들의 신념을 존중하는 마음을 보여 주십시오.
- 절대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모욕하지 마십시오.

-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 공손하게 행동하고, 화를 내며 말다툼을 하지 마십시오.
- 진리를 수호하십시오.
- 복음에 대해 겸손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십시오.]”(에베소서 4:15)

구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구주의 계명은 아마도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도전 과제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사랑을 보이기 위해 노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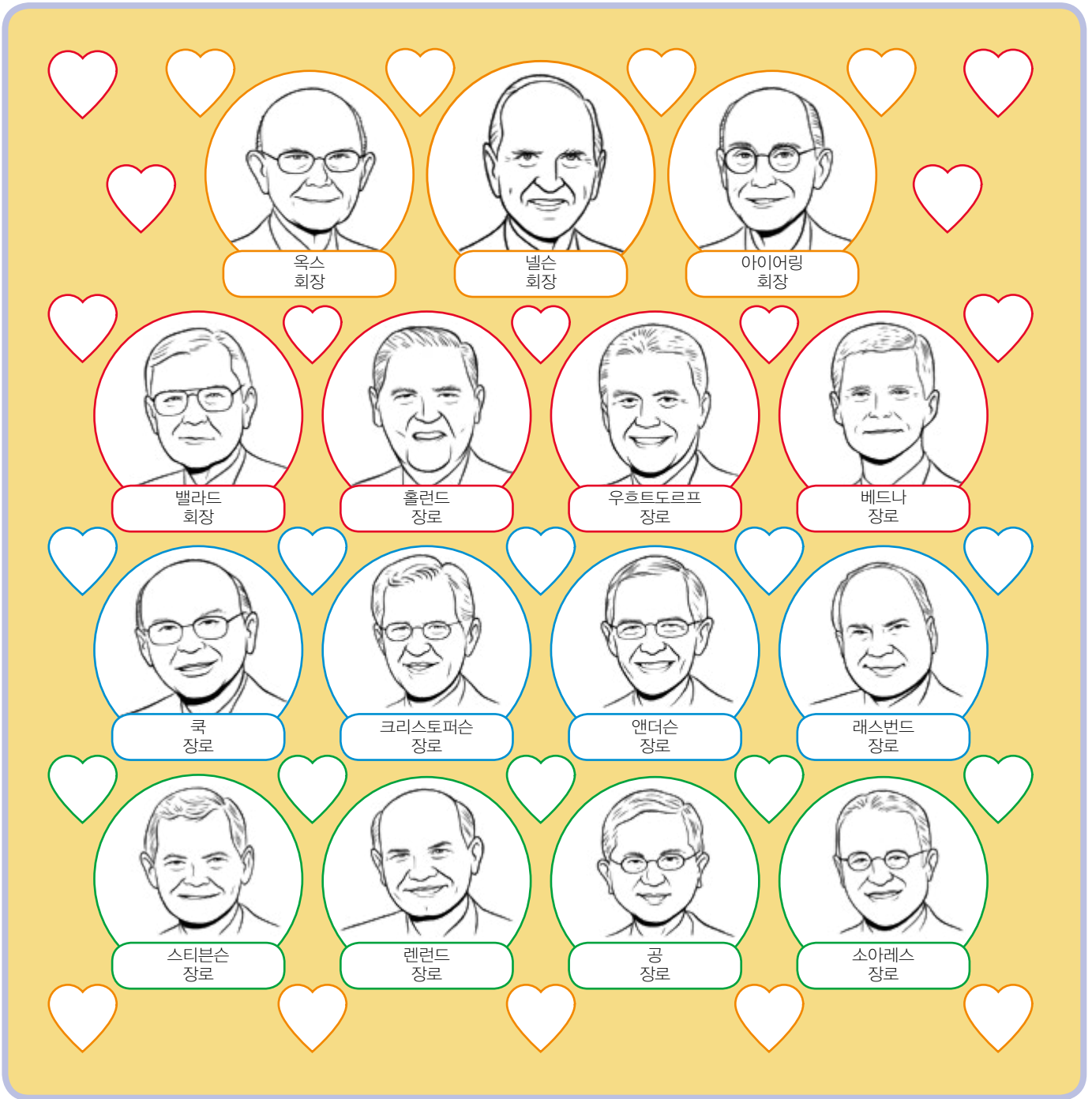
달린 에이치 옥스, 「타인을 사랑하고, 차이를 존중하며 살아갑시다, 『리아호나』, 2014년 11월호, 25~28쪽에서 인용함.

선지자들과 사도들

경전에는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
 었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다는 말이 나와요.
 (에베소서 2:20)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 교회를 이끄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림 속에 있는 분들이 연차 대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분의 얼굴을 색칠해 보세요. 아니면, 연차 대회가 끝난 후에
 가족과 함께 어떤 분들의 말씀이 좋았는지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을 전해 주신 분들을 색칠해 보세요. 누군가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그 말씀을 한 사람의 옆에 있는 하트 모양을
 색칠해 보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이 활동은 『와서 나를 따라—개인 및 가족』 155쪽의 내용을 뒷받침합니다.

기도하기만 한다면

프로디는 다시
잠들기 무서웠어요.
또 무서운 꿈을 꾸면
어쩌죠?





루시 스티븐슨
교회 잡지

“기도하라, 주 들으시라”(『어린이 찬송가』, 6장)

프로디는 화들짝 놀라서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가슴이 쿵쿵쿵쿵 뛰었어요.

프로디는 어두운 방 안에 앉아 있었고, 빗방울이 지붕 위로 후둑후둑 떨어지고 있었어요. 창문 밖 아프리카 무화과나무에서 빗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 왔어요. 후텁지근한 밤공기가 느껴졌어요. 프로디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긴장을 풀어 보기로 했어요. 그냥 꿈을 꾸 것뿐이니까요.

프로디는 침대에서 기어 나와 부모님의 방을 슬쩍 들여다보았어요. 엄마와 아빠는 편안히 주무시고 계셨어요. 동생 셀리아 역시 자기 침대에서 웅크려 자고 있었죠. 모든 게 다 괜찮았어요. 가족들은 안전했어요.

프로디는 침대로 돌아와 다시 잠자리에 들었어요. 하지만 이리저리 뒤척이다 돌아눕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꿈이 진짜가 아니라는 건 알지만, 정말 무서웠는걸요! 프로디는 몸이 피곤했어도 다시 잠이 드는 건 두려웠어요. 또 무서운 꿈을 꾸면 어찌죠?

프로디는 똑바로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행복한 생각을 해 보기로 했어요. ‘하늘 아버지, 정말인가요? 어린이 기도 듣고 응답하나요?’ 프로디가 가장 좋아하는 초등학교 노래를 생각하자 따뜻한 느낌이 몰려왔어요. 키오스카 자매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프로디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어요. 프로디는 침대에서 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정말 무서워요. 부디 제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 주세요. 제가 잠들 수 있게, 그리고 나쁜 꿈을 또 꾸지 않게 도와주세요.”

프로디는 기도를 끝마치고 다시 침대로 올라갔어요. 긴장되었던 몸이 풀리고 마음도 평안해졌어요. 프로디는 곧 까무룩 잠들었어요.

아침이 되었을 때, 프로디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따듯한 햇살을 받으며 잠에서 깨어났어요. 부엌에서 냄비가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프로디는 엄마를 찾으러 나갔어요. 셀리아는 식탁에서 어제 먹고 남은 카사바를 먹고 있었어요.[카사바: 고구마처럼 생긴 열대 식물—웁긴이] 엄마는 프로디가 먹을 카사바를 데우고 계셨어요.

엄마는 프로디에게 아침 인사를 하셨어요. “안녕, 잘 잤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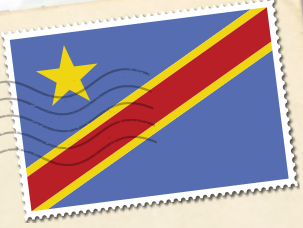
그러자 프로디가 이렇게 말했어요. “진짜 끔찍한 꿈을 꿴어요. 하지만 기도를 했더니 마음이 확 놓였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신 것 같아요.”

“무서운 꿈을 꾸었다니, 힘들었겠네.” 엄마는 프로디를 오랫동안 꼬옥 안아 주셨어요. “기도를 했더니 진짜 기특한걸.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로 도와주신 것 같구나.”

“그러셨어요.” 프로디가 대답했어요. “잠도 다시 잘 잤고 그 뒤엔 무서운 꿈도 안 꿴어요.” 프로디는 엄마를 꼭 껴안았어요. 프로디는 아무리 무서운 일이 있어도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곁에 계셔 주시리라는 걸 알게 되어 마음이 기뻐요. ●

한 장을 넘기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을 만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콩고민주
공화국이에요!



콩고민주공화국은
아프리카 대륙 중앙에 있는
나라예요. 이곳에는 약 8천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마고와
파올로예요!



우리는 함께
콩고민주공화국으로
갈 거예요.



콩고민주공화국에는 아주 넓은 면적의 열대
우림이 우거져 있어요. 열대 우림은 코끼리,
고릴라, 코뿔소처럼 재미난 동물들의 집이
되어 주지요.
이 동물의 이름은 오카피예요.



콩고민주공화국은 나무로 만든
조각상, 손으로 직접 짜서 만드는
바구니와 가면 등 아름다운 전통
예술로 유명해요.





콩고민주공화국에 있는 교회 회원들은 거의 다 프랑스어를 써요. 프랑스어는 이 나라의 공식 언어예요. 사실 콩고민주공화국에는 프랑스어 외에도 거의 250개에 달하는 다른 언어들도 더 있어요.



우리 교회의 선교사들이 콩고민주공화국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것은 1986년부터예요. 이제 이 나라에는 거의 6만 명의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들이 살고 있어요.

콩고민주공화국의 친구들을 만나 보세요!

올해 콩고에 첫 번째 성전이 세워졌어요! 교회 회원들은 조국에 성전이 세워져서 정말 기뻐어요.



우리와 함께
콩고민주공화국을 탐험해
주어서 고마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어떤 일요일에 거리가 온통 군인들로 가득했던 적이 있어요. 그걸 보신 엄마 아빠는 오늘은 교회에 가기 힘들겠다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저는 성찬식 모임만이라도 꼭 가야 한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함께 신앙을 보였고, 주님의 날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 교회로 갔어요.”
프로디 케이, 7세, 콩고민주공화국 킨샤사



“저는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 정말 좋아요. 어느 날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어떤 아이를 보았는데, 그 친구는 먹을 것이 없어서 슬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제가 가져온 음식을 나눠 주었어요.”
셀리아 치디비 케이, 5세, 콩고민주공화국 킨샤사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사시나요? 여러분의 글을 보내 주세요! 우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친24쪽을 보세요.



나만
다른 게
싫어요!



엘리자 브로드벤트
실화에 근거함

“영혼의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큼을 기억하라.”(고리와 성약 18:10)

미카는 항상 춤 수업을 기다려요. 미카는 음악 듣는 걸 좋아해요. 미카는 나비 뛰기 동작을 좋아하는데, 이제 막 제대로 해내기 시작했죠. 특히 이 동작은 반 친구들과 다 같이 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면 모두 다 똑같이 무용수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그러면 미카 혼자서만 다운 증후군이 있다는 것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오늘은 새로운 춤 스텝을 배웠어요. 미카는 선생님이 공중으로 뛰어오르는 것을 지켜봤어요. 다른 친구들이 따라 하는 것도 보았어요. 어떤 친구들은 바로 동작을 해냈어요. 다른 친구들은 몇 번 더 동작을 시도해 보았어요. 미카는 몇 번이고 도전했지만, 제대로 하는 건 어려웠어요.

“저 좀 도와주실래요, 선생님?” 미카가 선생님께 부탁드렸어요. 옆에 있던 친구가 미카를 쳐다봤어요. 그 친구는 다른 친구의



긋가에 이렇게 속삭였어요. “재는 왜 말을 이상하게 해?” 두 친구는 고개를 돌려 미카를 쳐다보았어요.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오는 내내 미카는 말이 없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부엌에서 반죽을 하고 계셨어요. 엄마의 볼에 밀가루가 묻어 있었죠. 그런 걸 보면 미카는 종종 웃음을 터뜨렸지만, 오늘은 그냥 가방을 바닥에 떨구고 식탁 의자에 털썩 앉았어요.

“춤 수업은 어땠니?” 엄마가 물으셨어요.

“완전 별로였어요. 선생님한테 도와 달라고 했는데, 그걸 들은 어떤 애가 내 말투가 이상하대요. 그러고는 날 계속 쳐다봤어요.” 미카는 고개를 푹 떨궜어요. “이젠 춤 수업에 안 갈래요.”

“미카.”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정말 힘들었겠네. 그런데 아빠랑 엄마는 미카가 춤 추는 걸 보는 게 정말 좋아. 네가 열심히 노력한다는 게 자랑스럽거든!”

미카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다운 증후군이 있는 게 싫어요. 내 얼굴만 다르게 생긴 것도 싫어요. 뭘 배울 때 이렇게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말하는 것도 연습해야 하잖아요!”

아빠는 미카 곁에 앉아서 미카를 감싸 안아 주었어요. “미카, 우리는 너를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네게서 바꾸고 싶은 건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미카는 고개를 가로젓고 두 팔 사이에 얼굴을 파묻었어요. “나만 다른 게 싫어요. 다운 증후군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엄마와 아빠는 잠시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엄마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미카가 뻐끔히 엄마를 보았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도로 여쭙 보면 어떨까?”

미카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미카는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미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뭘 물어보면 좋을지 기억할 수 있게 적어 주실 수 있어요?”

엄마는 질문을 적어 주셨어요. 미카는 종이를 들고 기도하기 위해 방으로 들어갔어요.

몇 분 뒤에 미카는 환하게 밝아진 얼굴로 부엌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대답해 주셨어요!” 미카가 말했어요.

“뭐라고 하셨니?” 엄마가 물으셨어요.

“하나님이 ‘미카야,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라고 하셨어요. 아주 아주 크게요!”

다음 주 춤 수업에 갔을 때, 미카는 친구들이 다운 증후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친구 사라가 슬퍼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라도 몇 가지 새로운 동작들을 배우는 걸 어려워하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간 후에 미카는 사라에게 쪽지를 쓰기로 결심했어요. 미카는 쪽지에다 하트를 많이 그렸어요. 엄마가 맞춤법에 맞게 글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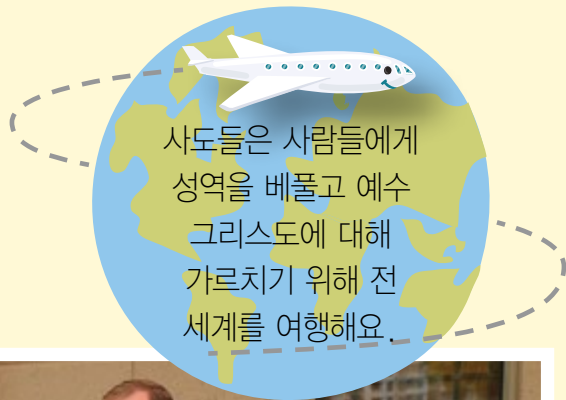
“사라에게, 네 춤은 정말 멋져. 너랑 친구가 되고 싶어. 너와 같은 반이어서 행복해.”

미카는 사라에게 쪽지를 전해 줄 날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미카는 사라가 자신처럼 행복하고 사랑받는 기분을 느끼도록 도와주고 싶었어요. ●

글쓴이는 미국 유타주에 산다.



칠레로 간 스티븐슨 장로



사도들은 사람들에게
성역을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치기 위해 전
세계를 여행해요.



사도들은 전 세계를 다니며 사람들에게 성역을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가르칩니다.
게리 이 스티븐슨 장로님과 리사 스티븐슨 자매님은 러셀 엠 넬슨 회장님, 웬디 넬슨 자매님과 함께 칠레로 가서 아주 중요한 행사에
참석하셨어요. 칠레의 콘셉시온이라는 도시에서 새로운 성전이 헌납되었기 때문이었죠!

새로 지은 이 아름다운
성전은 칠레에 생긴 두 번째
성전이자 남아메리카 대륙의
18번째 성전이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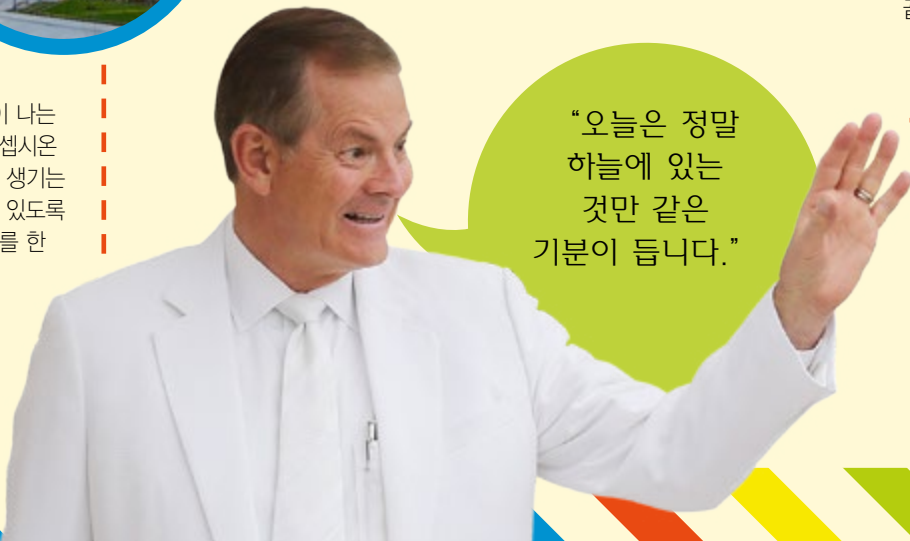


성전 헌납을 위해 넬슨 회장님이 드릴 특별한
기도를 들으려고 어린이들이 부모님의 손을
잡고 이 자리에 함께 참석했어요.



라우라와 알리시아 오가 성전 외벽에 마지막 돌을
놓는 일을 도왔어요. 이 돌은 성전 모퉁잇돌이라고
불러요. 이제, 성전을 헌납할 준비가 모두
끝났어요.

칠레는 지진이 많이 나는
나라예요. 칠레 콘셉시온
성전은 지진 때문에 생기는
위험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특별한 기초 공사를 한
곳이예요.



“오늘은 정말
하늘에 있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합당한 회원들은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가족과 인봉되고 성전 침례를
받으며 봉사할 수 있어요!

어린이들을 만나는 렌런드 장로

데일 지 렌런드 장로님은 부인인 루스 엘 렌런드 자매님과 함께 많은 곳을 방문하시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 수 있도록 도우세요. 렌런드 장로님은 선교사들에게 말씀도 많이 전하세요. 하지만 어떤 곳을 가든 렌런드 장로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어린이들을 만나고 약속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가끔 장로님은 어린이들을 만나기 위해 초등학교 시간에도 참석하세요!



사도들은 사람들에게
성역을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치기 위해 전
세계를 여행해요.

일본에서



페루에서



볼리비아에서



대한민국에서



“비밀 한 가지를
말씀드릴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교회 잡지는
바로 『친구들』입니다.
『리아호나』가 오면 언제나
그 부분을 제일
먼저 읽습니다!”



렌런드 장로님은 전 세계 방방곡곡에 사는 모든 어린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들을 알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으면 하신대요.

플로렌스의 흰색 모자

조던 몬슨 라이트
실화에 근거함

열 세 살인 플로렌스 오니어제퀘는 나이지리아 오니차시의 혼잡한 야외 시장 한편의 자기 자리로 갔어요. 거리는 바쁘게 장을 보는 사람들을 불러 세우려는 상인들로 붐볐고, 여자들은 머리에 짐을 이고 길을 지나다녔어요. 휴일이 시작되면서 학기가 끝이 났고, 플로렌스의 친구들은 방학을 즐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플로렌스는 연휴 동안 이곳 시장에서 베르노니아 잎을 팔고 있었어요. 학비를 벌기 위해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거든요.

하지만 플로렌스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엄마도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매일 시장에서 긴 시간 동안 참마를 파시는걸요.

엄마는 정말 부지런히 일하세요. 부모님 두 분 다 열심히 일하시지요. 하지만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하신 탓에 부모님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어요. 플로렌스는 이제



초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었어요. 만약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다면, 좋은 일자리를 구해서 가족에게 보탬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플로렌스는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께 이렇게 여쭙었어요. “제가 중등학교에 갈 수 있을까요? 어쩌면 대학교도 갈 수 있을까요?”

엄마는 Nnam[남, 아빠라는 뜻]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으셨어요. “우리가 가진 돈으로 대학교 학비는 꿈도 못 꾸겠지.” 아빠가 대답하셨어요. 플로렌스는 고개를 떨구고 신발만 쳐다봤어요. 실망한 표정을 부모님께 보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며칠 후, 플로렌스는 약을 받으러 병원에 들렀어요. 병원은 시장만큼이나 붐볐지만 시끄럽지는 않았어요. 플로렌스는 간호사들이 뺨뺨한 흰색 모자를 쓰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플로렌스는 큰 병원에서 저런 간호복을 입고 아픈 사람들과 아기들을 돌보는 자신을 상상해 보았어요. 어쩌면 나도 간호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플로렌스는 학교를 계속 다니기는 힘들 거라는 부모님의 말씀이 맞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플로렌스는 열심히 일하는 법을 알고 있었어요. 플로렌스는 시도해 보기로 결심했어요.

할 일이 아무리 많은 날이어도 플로렌스는 잠을 내어 공부했어요. 그 결과 중등학교 시험을 통과했고, 아빠는 플로렌스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돈을 빌리셨어요.



시간이 지난 후, 플로렌스는 정부에서 간호 학교의 학비를 지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 플로렌스의 꿈이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하지만 플로렌스는 간호 학교를 진학을 앞두고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만약 너무 어려우면 어떡하죠? 학교에서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플로렌스는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하나님, 제가 간호 학교에 가서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플로렌스는 간호 학교에서 약을 처방하는 방법과 의료 기구를 세균 없이 깨끗하게 관리하는 기술을 배웠어요. 플로렌스가 보살핀 환자들은 건강해지기도 했지만, 어떨 때는 그렇지 않기도 했어요. 그래서 플로렌스는 용기를 얻기 위해 자주 기도했어요.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고, 플로렌스는 반에서 최우등 학생으로 졸업하게 되었어요. 드디어 꿈이 이루어졌어요! 플로렌스는 흰색 간호사 모자를 쓰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족을 도울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돈을 벌게 되었지요. 여러 해가 지난 후, 플로렌스는 가나 아크라 선교부 지역에 있는



작은 지부를 방문했어요. 플로렌스의 남편 크리스토퍼 처쿠라는 그곳 선교부의 회장이었어요. 플로렌스는 그 지부에서 학교에 제대로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을 만났어요. 그 아이들은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플로렌스는 그 아이들을 보고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이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이야기해야 할까요?” 플로렌스는 조용히 기도했어요.

그러자 분명한 영감이 느껴졌어요. “너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거라.”

플로렌스는 자신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보았어요. 플로렌스는 나이지리아와 미국의 병원에서 일했어요. 훌륭한 남편과 결혼했고, 그들은 함께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되는 경험도 했어요. 플로렌스는 이제 선교사들이 건강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플로렌스가 간호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은 플로렌스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해내도록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아이들을 위해서도 똑같은 일을 하실 수 있어요.

플로렌스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방긋 웃음을 지었어요. “간호사들이 쓰는 흰색 모자를 본 적이 있나요? 저는 그 모자를 보고 간호사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 ●

글쓴이는 미국 미시간주에 살아요.

이 사진은 플로렌스가 마침내 흰색 간호사 모자를 쓰게 되었을 때의 모습이에요!





브루클린 피, 9세, 미국 유타주

작년에 도서관에서 책을 한 권 골라서 집어 들었는데, 그것은 블로그를 시작한 어느 여자아이의 이야기가 담긴 내용이었어요. 주인공

여자아이가 저랑 동갑이고, 저희 엄마도 블로그를 하시니까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잘 공감할 수 있는 책 같아 보였죠.

하지만 몇 쪽을 읽기 시작했을 때, 주인공 여자아이가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런 말을 읽으니 정말 기분이 별로였어요. 저는 제발 이번 한 번만 이러는 것이길 바라며 계속해서 다음 장을 읽어 나갔어요. 그리고 몇 쪽을 더 읽었는데, 주인공이 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바로 엄마에게 가서 이 일을 말씀드렸어요. 이 책을 계속 읽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엄마는 이걸 제가 직접 선택해야 하는 문제라고 대답하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옳지 않다고 알고 있는

말이 나오는 책이라면 더 읽지 않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엄마는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건 특히 좋은 일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런 말이 또 나올 것 같아서 책장을 휙휙 넘기며 내용을 대강 훑어보았어요. 그러면서 보니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는 부분이 곳곳에서 발견되었어요. 저는 결국 책장을 덮었고, 이 책을 이대로 도서관에 반납하기로 결정했어요.

이 책의 작가가 주님의 이름을 그런 식으로 썼다는 게 슬펐어요. 하지만 그 책을 도서관에 반납한 후에는 마음이 행복해졌어요. 저는 옳은 선택을 한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제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책에 나오는 “나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 드릴 것만을 읽고 보겠습니다.”라는 “나의 복음 표준”을 따랐다는 것을 알아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요. ●

이건 계속 읽어야 할까?



내게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나는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어요.
(빌립보서 4:13 참조)





조이 디 존스
본부 초등학교 회장

성전 속제



“자녀들의 마음은 그들의 아버지들에게로 돌이키리라.”(교리와 성약 2:2)*

어느 일요일, 저는 제 보좌와 함께 어느 교회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우리는 성전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특별한 일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12살 소년 콜비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악수를 하고, 함께 성전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후, 저는 콜비에게 성전에 가져갈 가족의 이름을 찾아보라는 숙제를 주었습니다.

얼마 안 가서, 콜비는 제게 편지를 보내 왔습니다. 편지에서 콜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집으로 가서 새로운 이름을 찾아봤어요. 저는 우리 조상 중에 할아버지 한 분의 이름을 찾아냈어요!

얼마 후에는 성전에 가서 그 할아버지를 위해 제가 침례도

받았어요. 그날은 정말 특별했어요. 왜냐하면 제게 침례를 준 사람은 제 형이었고, 확인 의식을 해 준 사람은 우리 아빠셨거든요.

마음속이 파스해지면서 평화로운 기분이 느껴졌어요. 할아버지를 위해 제가 정말 좋은 일을 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 할아버지는 해의 왕국에 가서 가족과 함께 사실 수 있으니까요! 의식이 끝나고 그날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마음속에서 그 좋은 기분이 계속 느껴졌어요.

또 한 가지 알아낸 게 있는데, 바로 그 할아버지의 부모님 성함을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분들의 이름도 제가 찾아서 성전에 가져갈 수 있겠죠!”

콜비의 모범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나이에 상관없이 여러분은 가족과 친구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아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조상들도 포함해서 말이지요! ●

어린이 발표

이번 달에 연차 대회가 열릴 거예요! 이 어린이들이 연차 대회를 좋아하는 이유에 관해 소개할 거예요.



저는 이야기를 듣고 합창단의 노래를 듣는 게 좋아요. 말씀에 나오는 비유를 듣는 것도 좋아요.

유리 에이치, 8세, 타이완 타오위안



저는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주님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안드레스 시, 12세, 콜롬비아 바우예델 카우카



제가 연차 대회를 보는 걸 좋아하는 이유는 선지자들에게 배우는 게 좋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예요.

다비드 제이, 9세, 과테말라 솔롤라



라이베리아 봉카운티에 사는 10살 소년 아벨 시와 9살 티나 에스는 남매 사이예요. 아벨이 연차 대회를 좋아하는 “이유는 해마다 우리의 선지자를 교회의 회장으로 지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티나는 “선지자께서 성전에 대해 말씀하시는 시간을 좋아해요.”



인도 마하라시트라에 사는 10살 안나 비는 엄마와 함께 연차 대회를 봐요. 안나는 늘 일지와 펜을 준비해서 연차 대회에서 들은 간증과 가르침을 기록해요.



네덜란드 조이트홀란트에 사는 4살 데이비드와 6살 율리아나 엠은 바구니 15개에 과자를 담은 다음, 거기에 사도들과 제일회장단 일원의 각 사진을 붙인답니다. 그리고 사진 속의 주인공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바구니에 든 과자를 먹는 거죠!





스페인



필리핀



스페인어로 주님을 위해 봉사한 사람

제니퍼 매디
실화에 근거

친 구가 자신이 읽어 본 최고의 책을 여러분에게 건네줬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책 표지를 넘겼는데, 여러분은 그 책을 읽을 수 없었어요. 그 책은 다른 나라 언어로 쓰여 있었으니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건가요?

교회 초기에 물문경은 영어로만 인쇄되었어요. 브리검 영 회장님은 멕시코에 복음을 전파하고 물문경을 스페인어로 번역하기 위해 두 선교사에게 부름을 주셨어요. 하지만 그 일을 해내려면 더 많은 도움이 필요했지요. 하나님은 선교사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한 사람을 바다 건너에 준비해 두셨어요. 하지만 선교사들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멜리톤 곤살레스 트레호는 스페인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했고, 스페인 군대의 장교가 되었어요. 멜리톤은 항상 종교에 관심이 있었지만, 옳다고 느껴지는 종교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멜리톤은 스스로를 "성도"라 부르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장교에게서 듣게 되었어요. 그 장교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한 선지자가 그들을 미국의

로키산맥으로 인도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주었어요. 멜리톤은 그들을 만나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느꼈어요. 멜리톤은 필리핀으로 원정을 가는 군대에 합류했어요. 멜리톤은 이 원정이 훗날 미국에 가는 기회로 이어지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업무로 바빠진 나머지 성도들을 방문하려던 계획은 조금씩 밀려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에 멜리톤은 심각한 병에 걸리게 되었어요. 그때 그는 자신이 필리핀에 온 이유를 기억해 냈고,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 기도로 여쭙았어요. 그날 밤, 멜리톤은 특별한 꿈을 꾸었어요. 그는 로키산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멜리톤은 병이 낫자마자 미국으로 떠났어요. 그는 1874년 7월 4일에 캘리포니아에 도착한 후 솔트레이크시티로 향했어요.

솔트레이크에 도착했을 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멜리톤은 영어를 읽을 줄은 알았지만, 말을 해 본 적은 없었어요. 멜리톤은 누구와도 대화를 할 수가 없었어요! 멜리톤은 대화하는 게 어렵다면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의 주의를 끌어 보기로 마음먹었어요. 멜리톤은 스페인 군복을 입고 도시의 거리를 활보했어요. 기대했던 대로 많은 사람들이 멜리톤을 주목했어요! 마침내 멜리톤은 교회



회원인 블랑샤르 형제님과 마주치게 되었어요. 블랑샤르 형제님은 대학교수였고 스페인어를 할 수 있었어요. 블랑샤르 형제님은 멜리톤이 솔트레이크에 정착하도록 도와주고 복음을 가르쳐 주었어요. 멜리톤은 곧 침례를 받았어요.

블랑샤르 형제님은 멜리톤을 브리검 영 회장님에게 소개해 주었어요. 멜리톤은 영 회장님에게 무엇보다도 몰몬경을 스페인어로 번역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어요.

영 회장님은 멜리톤에게 멕시코로 가는 선교사들을 도와 몰몬경의 일부를 스페인어로 번역해 달라고 부탁하셨어요. 멜리톤은 영어를 스페인어로 번역하면서 여러 주를 보냈어요. 매일 밤 그는 번역한 것을 선교사들과 함께 검토했어요. 선교사들은 스페인어를 조금은 할 줄 알았지만, 이렇게 중요한 번역을 할 때에는 스페인어가 모국어인 사람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선교사들은 멜리톤이 바로 자신들이 드린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스페인어로 번역된 몰몬경은 1875년에 출판되었어요. 제목은 Trozos Selectos del Libro de Mormon(몰몬경 성구 선별집)이라고 붙였어요.

이제 선교사들은 멕시코로 떠날 준비가 되었어요. 그들은 번역된 경전 1,500부를 말에 싣고 길을 떠났어요. 이제 스페인어를 쓰는 사람들이 몰몬경을 모국어로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멜리톤은 수천 마일이나 떨어진 스페인에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가 있어야 할 장소로 멜리톤을 인도하셨어요. 멜리톤의 용기와 신앙 덕분에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되었어요. ●

글쓴이는 미국 유타주에 산다.



멜리톤 곤살레스 트레호(1844~1917)는 멕시코에서 여러 차례 선교 사업을 했고, 그 지역 교회의 초창기 회원들 일부가 그에게 침례를 받았어요. 1886년에 멜리톤은 몰몬경 전체 내용을 스페인어로 번역하는 작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도왔어요.

바울의 선교 여행

머리사 위디슨
교회 잡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바울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가르치기 위해 다른 땅으로 건너갔어요.
그때는 자동차도 비행기도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아주 먼 거리를 직접 걸어서 다녔어요!
때로는 배를 타고 가기도 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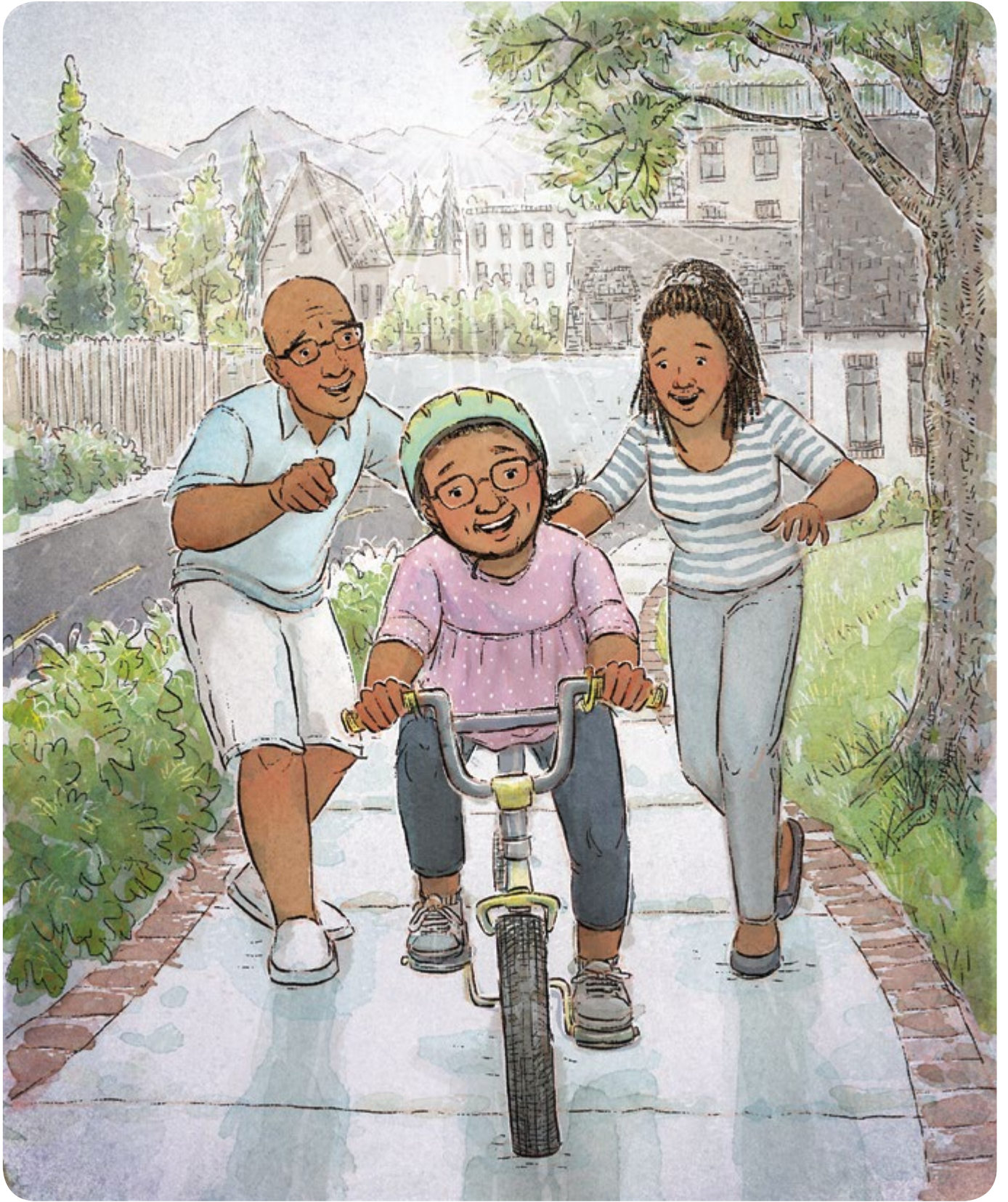
바울은 여러 교회와 사람들의 집을 찾아가서 복음을 가르쳤어요. 바울은 바위투성이 언덕 꼭대기와 도시의 거리에서도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여러 번이나 감옥에 갇혔어요. 몸이 아픈 적도 많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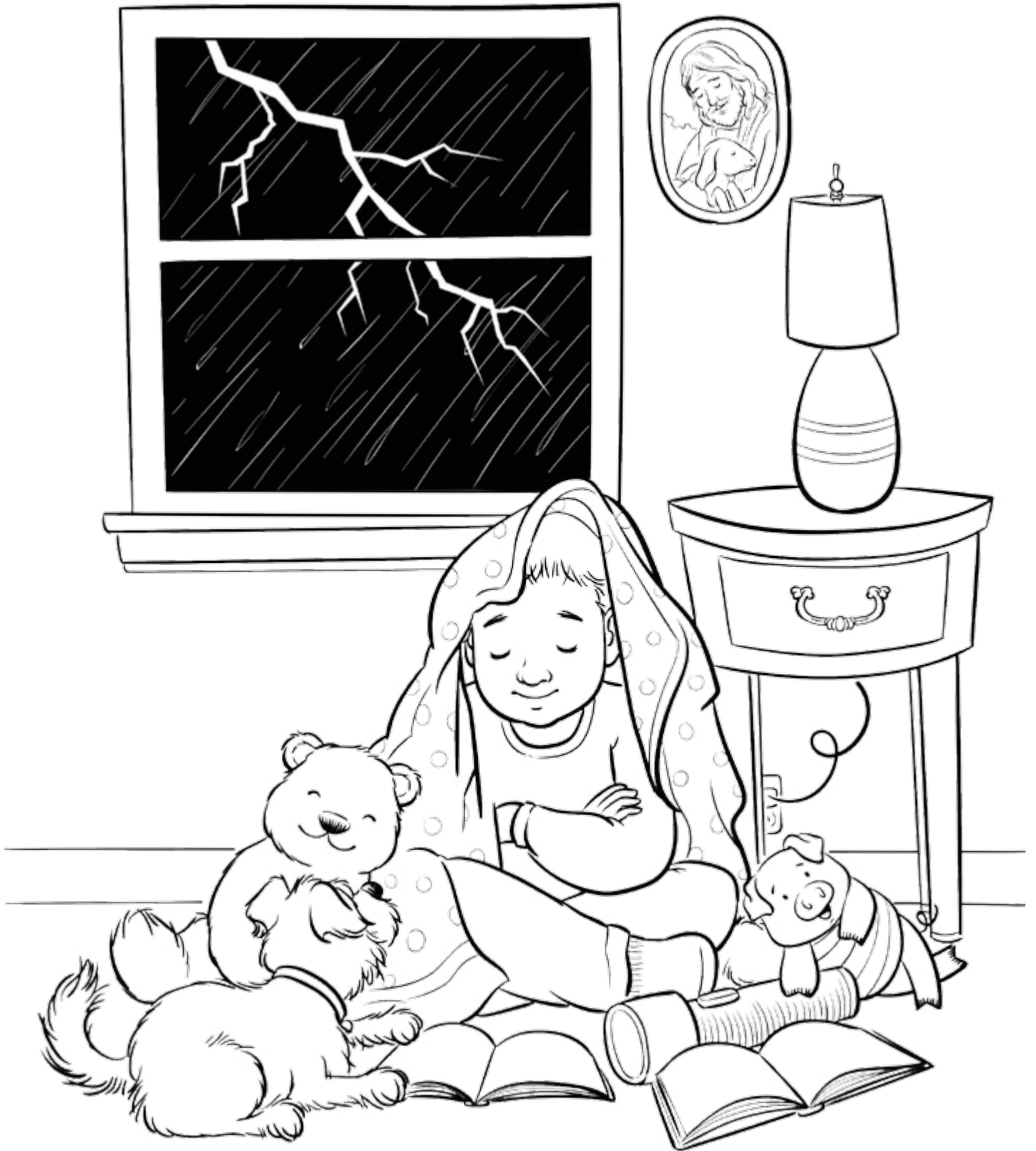


하지만 그 모든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도 바울은 신앙을 가졌어요.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강인해지도록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리라는 것을 알았어요.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 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저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저도 그분을 사랑해요!

예수님은 내가 힘든 일을 해내도록 도와주실 수 있어요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신약전서에서 전하는 주된 교훈 중 하나는 현재 우리 각자의 삶이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호에서 그와 비슷한 여러 간증을 보게 될 것입니다.

- 친4쪽에는 악몽을 꾀 남자아이가 위로를 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 친8쪽에는 다운 증후군이 있는 여자아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 친15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있다면 그 어떤 것도 해낼 수 있다는 가르침이 담긴 포스터가 나옵니다.
- 친20~23쪽에서는 신앙의 모범을 보인 바울의 이야기를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호를 함께 읽을 때, 각 이야기에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을 도우셨는지 찾아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마주했던 도전들을 설명하는 단어에 밑줄을 그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이 받은 도움을 말해 주는 단어에도 동그라미를 그려 보십시오. 때로는 시련이 사라지고, 때로는 우리가 시련을 겪으며 더 강한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 가족과 함께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 두 가지 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한 달이 여러분에게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친구들

자녀의 작품이나 경험담을 「리아호나」로 보내고 싶다면

liahona.ChurchofJesusChrist.org에서
“기사나 피드백 제출”을 클릭하십시오. 또는
자녀의 이름과 나이, 거주 지역, 그리고
“나 [부모의 이름]/는 내 자녀가 제출한
자료를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교회
잡지, 교회 웹사이트,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것을 허가합니다.”라는 내용의
동의문을 liahona@ChurchofJesusChrist.org
로 보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를 빨리
듣고 싶습니다!



책 속에 숨어 있는 리아호나를 찾아보세요!

목차

- 친2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 친4 기도하기만 한다면
- 친6 안녕하세요? 여기는 콩고민주공화국이에요!
- 친8 나만 다른 게 싫어요!
- 친10 전 세계를 여행하는 사도들: 칠레로 간 스티븐슨 장로
- 친11 전 세계를 여행하는 사도들: 어린이들을 만나는 렌런드 장로
- 친12 플로렌스의 흰색 모자
- 친14 이걸 계속 읽어야 할까?
- 친15 빛나는 아이디어: 내게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나는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어요.
- 친16 성전 축제
- 친17 어린이 발표
- 친18 용감한 모범: 스페인어로 주님을 위해 봉사한 사람
- 친20 경전 이야기: 바울의 선교 여행
- 친23 색칠하기: 예수님은 내가 힘든 일을 해내도록 도와주실 수 있어요

「친구들」 표지
삽화: 마키 파민투안